

서울대

# 교육저널

|대안교육| 교육공동체 <나다>

|기획| 교육의 중립성과 탈정치

|현장취재| 여름교육활동 <더불어숲>

미성숙의  
신화를 깨라!

|특집| 청소년인권

서울대

# 교육저널

| 대안교육 | 교육공동체 <나다>

| 기획 | 교육의 증립성과 탈정치

| 현장취재 | 여름교육활동 <더불어숲>

미성숙의  
신화를 깨라!

| 특집 | 청소년인권

서울대 교육저널 편집위원회

여는 소리

# 교육을 말하려 합니다

서명 | realmbl2@hanmail.net

어느덧 12월. 또 한 학기가,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달입니다. 하지만 12월은 마무리와 정리의 달이면서, 겨울의 시작이자 더 나은 다음을 기약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 여름에 준비가 시작됐던 『서울대 교육저널』이, 이렇게 겨울의 앞머리에 드디어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악에 여러 자치언론이 있고, 각 언론마다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갈수록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말하는 이들은 줄어들고, 특히나 교육을 고민한다는, 예비교사들의 집합이라는 사범대에서까지, 교육담론은 시들하다 못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27대 사범대 학생회에서는 교육 언론 창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논의 과정을 거쳐, 일회성이 될 수 있는 학생회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무엇보다 관악 내의 교육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 조낸 뺄세겠지만 이왕 준비하기 시작한 거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살벌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력, 자금 등에 있어서 자치언론의 위기 상황이라는 이 시점에, 전 관악을 대상으로 하는 저널을 창간하겠다는 아주 무모한 발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중등교육을 거쳤고, 지금 대학교육의 주체이기도 하며, 졸업 이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이 사회의 교육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궁극적으로 그 교육과 닿아있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들이 애정으로 바뀌는 과정에 『서울대 교육저널』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간호니깐 더 잘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창간호니깐 좀 못해도 되겠지라는 -\_-;; 돌이켜 보면 이상한(?) 면죄부를 부여해서인지, 내용상의, 편집상의 미숙한 점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새 내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소리|**

\* 교육을 말하러 찾니다 \_01

**|연속기획| 대안교육**

\* 대안교육 기획을 열며 \_04

\* 교육공동체 <나다> 인터뷰 \_05

**|시사| 교원임용**

\* 문제투성이 교사임용 \_12

**|특집| 청소년인권**

\* 학교에서, 거리에서 \_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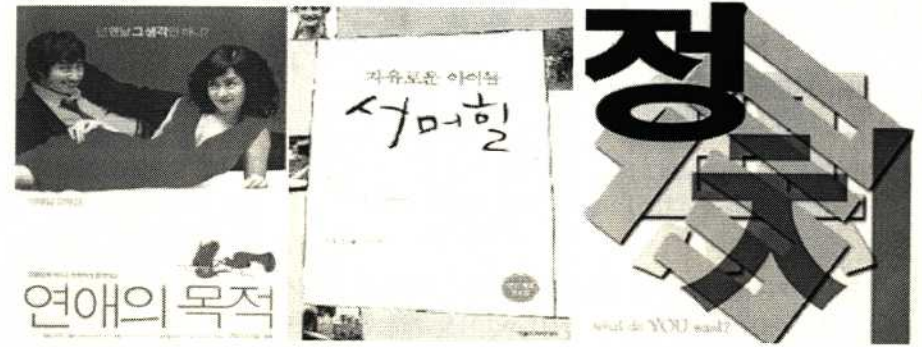
\* 미성숙의 신화, 이건 아니잖아 \_20

\* 실종된 청소년들의 말을 찾습니다 \_23

\* 학생인권법안을 아십니까 \_25

\* 어린이 청소년 인권 - 교육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기 \_28

\*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인터뷰 \_31



**|문화비평|**

\* 명예의 목적 \_39

**|서평|**

\* [서머힐]과 [딤스]로 보는 교육상 \_41

**|쉬어가기|**

\* [해웃음] 다시 내일을 생각하며 \_45

**교육의 중립성과 탈정치 | 기획 |**

\* 이상한 대화 \_46

**여름교육활동 <더불어숲> | 연광취재 |**

\* <더불어숲> 체험기 \_58

\* 교육활동을 둘러싼 욕망들 \_65

\* <더불어숲> 참가 수기 \_68

**공부방 수기 | 기고 |**

\*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_70

**|작업후기|**

# 대안교육 기획을 열며

혜경 | choihroi20@hotmail.com

"대안교육에 대해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매우 부끄럽게도, 이 기획을 처음 생각해냈을 때에는 별다른 고민의식 같은 것이 없었다. 그저 '하고 싶을' 뿐이었다. 아는 것도 없이 의욕만 앞섰기에 사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안교육 기획을 준비하기 전, 내가 왜 이 기획을 시작하려 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다.

흔히 대안교육에 대해서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정작 그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의식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대안학교 혹은 대안단체 등이 매우 다양한 만큼 각각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이를 풀어내려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모두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직접 대안교육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넓히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 또한,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획으로 냈게 되었고, 기획의 형식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택했다.

그리고 대안교육의 장을 몸소 느끼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원래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다. 그래서 대안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료를 많이 접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대안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수업참관 등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지적 욕구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를 굳이 저널의 기획으로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접한 것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나도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안교육을 느끼고 이를 풀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람이다.

이러저러한 부족한 계기들로 인해 이렇게 기획을 열게 되었다. 물론, 시작은 매우 소박하지만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교육공동체 '나다'이다. 이 기관은 경기도 분당에 위치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대안교육을 고민하는 단체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어떠한 단체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 처음 생겨나게 된 계기 및 과정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철학교실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교실이 입시교육이 강해지면서 점점 학원의 형태를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교무실 내에 '매'가 놓이기 시작할 정도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철학교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을 위한 철학교실 '나다'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당시까지는 웅변학원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기존의 변화를 바로 변화시킬 수도 없었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도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고민을 진행하면서 2002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2년 전 교육공동체 '나다'로 이름을 바꾸고 학원이라는 이름을 없애면서 본격적으로 교육단체로서 활동을 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나다' 내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가요?**

저희 기관은 매우 특이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수업도 중요시 여기지만 실천 영역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운동은 주로 중고생 운동을 의미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대중들도 의식 없는 분노만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역시 자생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만으로 변화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모두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이를 좀 더 재미있게



수업한다면 학생들이 저절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를 공교육 내부로 들어와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교육의 경우 암묵적으로 인문학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인문학 수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의 구조 및 시스템에 맞설 수 있는 방법으로써의 실천을 고

민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업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인권 활동의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 단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의 총체적인 모순을 담아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다'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운동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차이는 부모님의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의 차이만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성세대가 청소년과 어울려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은 소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직접 겪지 않고서 그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애매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인권 감수성과 같은 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운동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총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운동을 보면 기성

세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이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얼마 전에 '안티수능페스티벌'을 참여했었는데, 거기에서 운동 역시 기존의 것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운동은 기득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어렵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나다'가 이러한 색깔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나다' 인데요, 어떠한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나다'라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주어와 '다'라는 술어 사이를 누군가가 다 똑같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문학 수업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와 다른 사람들, 다 벗다('벗을 나'를 써서) 등 다양한 의미로 짓기도 합니다. 사실, 의미가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지어내기도 하는 등 열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일 쉽게는 '나로 산다.', '나답다.' 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학생들이 수업에서 직접 제작한 광고

저희가 내부에 수업이 있고 외부에도 수업이 있습니다. 물론,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대안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민들레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인문학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방학 때 특강 등을 통해서 일반 아이들에게 열린 수업을 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공교육 내에서도 인문학을 묶어서 C.A를 통해서 해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청소년 인권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업은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지향하는 것은 '미디어'입니다.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 이 수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은 각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합니다. 수업 인원은 많으면 10명인데, 그 이상은 수업을 하지 않고 그보다 더 적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수업은 서양사인데 이 밖에 문학, 과학, 철학,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많아서 주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토론식 수업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준비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수업이 너무 많아서 교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수업 중에 '똥떡 프로젝트' 라는게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똥떡 프로젝트'는 도덕으로 대표되는 제도 교육, 교과서 중심의 교육 전체를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차적으로 '선과 악'에 하나의 기준을 두고 이러한 것이 도덕이라고 가르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훈계, 계몽하려는 의도 등이 담겨있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 교과서에 아기 게들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걸자 엄마 게는 화를 내는데 알고 보니 엄마 게 역시 앞으로 걷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아기 게들이 비판을 하는 내용의 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 교과서에서는 엄마 게가 '너희들의 말에는 도덕적인 오류가 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단순해보이지만 사실 구조 및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탓하지 말아라, 하면 된다 라는 의도가 여전히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학생들에게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양새, 자아 등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한계까지도 뛰어넘는 무언가를 바라는 경우가 학교나 집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교육이 도덕 교육 등에 적나라하게 드러

납니다. 이는 꼭 도덕 교육의 문제 뿐만은 아니다. (정치 교과: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발전시켜서 하게 된 것이 바로 '똥떡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덕 교과와 관련한 새로운 책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나대를 운영하면서 겪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우선, 부모와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합리적으로 논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는 등의 학원에서 하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당지역이어서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나대'의 색이 드러나서인지 이러한 태도가 많이 줄어들었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예전보다 교사의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수업에 쫓겨서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을 상대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수업 중에 생기는 어려움은 없나요?**

학생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겪는 어려움은 아이들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수업을 매우 좋아하면서도 괴로워합니다. 민감하거나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은 더욱 심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의 경우 학교에서 매일 체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자체를 재밌어 하면서도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많고 괴로워서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데 자꾸 다른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스로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옆에서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잊고 싶은 마음에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힘들고 그러한 현실적인 불안감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집안 환경이나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하나씩 다 듣고 고민을 받아준다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정이 필요한데 그 정을 주는 것은 쉽지

만 이 정을 다시 거두어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어낼 때 끊어내는 것이 어렵고, 사실 이러한 아이들일 수록 정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수업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들자면 아이들이 처음 수업을 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정답에 대한 권위가 체득되어 있어서 입을 잘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실 토론식 수업은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생의 경우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역시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나다'라는 공간 내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뿐입니다. 그 외의 시간 동안 학교, 미디어, 가정 등의 공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경쟁, 게임 등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맞선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아이들을 보거나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두 시간이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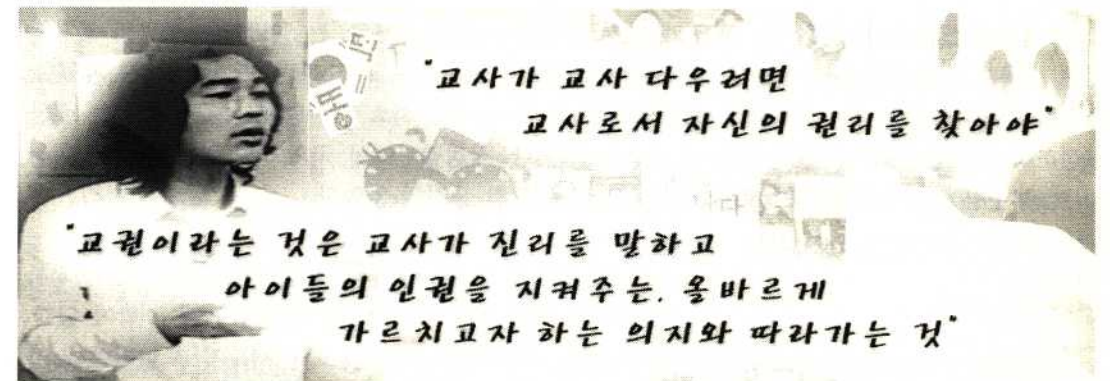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다'는 교육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 실천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3월부터는 홍대 근처로 자리를 옮겨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일할 계획입니다.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인문학 수업과 더불어 청소년 인권 단체와도 함께 일하면서 청소년 인권 활동 분야에 대한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교의 교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교권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교권이 존재하는 학교는 없다고 봅니다. 교권 침해라는 것은 교사가 '이러한 교육은 옳지 않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등의 주장을 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장 등이 교사를 해고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교사가 진리를 말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지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사가 하려는 모든 행위에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학부모의 폭력 등에 의해서 교사가 상처를 받았다면 이는 교권 침해가 아니라 인권 침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잘못된 구조 속에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교사는 마치 '연연하는' 느낌으로 있으며 실제로 그들의 권리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어도 교권이 있으려면 학생의 수업권도 함께 존재해야 하는데 수업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잠을 자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를 학생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업권을 가진다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잔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권리를 제공하지 못한 교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일 인터뷰를 해주신 변중용 선생님의 사진을 촬영하지 못해 합성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교사가 교사다우려면 교사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하지 못하면 좋은 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교사를 안정된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또한 교사 스스로도 자신을 상품화시키고 학교 역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사 혹은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암담합니다. 이러한 교육판에서 교사를 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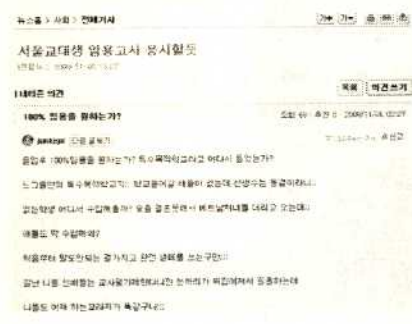


# 문제투성이 교사임용

기고 : 최교봉 | 교사

매년 9, 10월만 되면 교사 임용을 두고 한 판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예비교사'라고 자신을 호명하는 교대생과 사범대생은 기대보다 적은 신규교사 임용에 불만을 토로한다. 물론 반발의 강도는 사범대생보다 교대생이 훨씬 강하다. 교대 교육과정과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학의 성격상 교사지망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해 얼마나 교사를 임용할지는 공고가 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마따나 한국의 교사임용은 교육부 마음대로다. 교육부는 심지어는 법률로서 정한 중등교사 증원규모도 지키지 않았다. 미발령교사 특별법에서는 사범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2473명 이상을 증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증원은 1300명 증원에 그쳤다.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애초부터 법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교사 임용이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뤄졌으니,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1990년 이후 임용교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본주의적인 교사양성임용이 시작되었다. 임용교사 제도로 교사양성과 임용이 확연히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임용교사 도입 15년이 지난 지금 교대, 사대에서 “교사는 노량진에서 양성한다.”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할 학생은 대학 3학년 정도부터 노량진의 임용교사 학원에 등록하여 공부를 시작한다. 교육적 가치나, 교육철학을 논하기에 이 사회는 너무 살벌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사양성대학의 목적성이 축소되다 보니 ‘교대, 사대를 나오면 꼭 교사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수능 점수와 내신 성적에 맞춰서 교대, 사대에 지원한다. 또 상당수의 학생들은 교사가 안정적이라는 주변의 권유로 진학했다. 일부는 소신을 갖고 교대, 사범대에 진학했겠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교사양성대학은 점점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일반 단과대학과 별반 다르지 않은 단과대학으로 변해버렸다.

현재 매년 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은 매년 3만 3천여 명이 넘는다. 중등임용시험을 통해 교사가 되는 사람은 불과 3~4천명. 매년 3만 명 이상의 예비교사는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직업을 찾거나, 실업자가 된다. 임용시험 도입 15년 만에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20:1’을 넘어섰다. 일부 과목은 아예 선발을 하지 않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만이 비교적 많은 교사를 선발한다. 전남, 강원, 부산 등 여러 시도에서 중등교사를 감원하고 있으니 사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은 2020년까지 중등교사를 감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관료들은 ‘왜 꼭 교사대 졸업하면 교사가 되려고 하나. 일반 기업에 취직하면 되지 않느냐?’고 교육단체에 목소리를 높인다. ‘왜 다들 경쟁하는데, 너희들은 경쟁을 피하려 하느냐. 경쟁을 뚫고 교사가 되어야 실력을 인정받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에서 유래 없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정말 좋은 교사가 될까? 오늘의 한국교육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실을 애써 외면한다.

교대는 흡수통폐합, 사범대는 기능마비의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사범대의 경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엉켜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 사범대 측이 얼마 전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서울대 사범대 조영달 학장이 ‘국립 사범대의 6년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사범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해법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교사양성과 임용의 분리 문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는 6년제 사범대(교원전문대학원)로의 전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대의 경우 교대협이라는 전국적인 학생회 연대체라도 있어서 교원양성임용정책에 항의한다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있는 사범대는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침묵하고 있다. <전국 국립 사범대학 학생연합>(약칭 전사련)과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서사협)이라는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조직력이 취약하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만한 투쟁을 조직하지는 못한다. 사범대생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어 중등교원 양성 임용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2006년의 사태는 예고일 뿐, 본격적인 영화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사태가 교육계를 덮칠 것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교원양성 임용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학급충량제’ 등 여러 개념을 동원하여 교원수급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교원양성 임용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사와 예비교사는 여전히 ‘들러리’조차 되지 못한다. 공개적인 토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결정만이 존재한다. 그것도 한 해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임용교사 실시 3~4개월 전에야 그해 선발인원의 윤곽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본영화가 시작되는 2007년 이후가 되면 예비교사의 저항은 찻잔 속의 태풍을 넘어 좀 더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특집



# 청소년 인권

# 청소년 인권 기획 Guide

영광스럽게도(?) 창간호 특집은 "청소년인권"이라는 주제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특집이라고 하면서 정작 '특별한' 관심을 쏟지는 못했습니다. 우왕좌왕 난리를 친 끝에 겨우겨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글들을 내놓고, 인터뷰와 기고글을 통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취재가 부족했던 만큼,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고민이라도 잘 들어보자고 생각해서 인터뷰의 분량을 길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글 <학교에서, 거리에서>에서는 하늘과 단풍이라는 청소년들의 하루를 통해 현재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를 그려보았습니다. 픽션이지만 직접 청소년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통해 재구성한 글입니다. 과연 요즘 애들은 훨씬 편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 <미성숙의 신화, 이건 아니잖아>는 핵심정리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재미는 별로 없고 ^^;; 청소년인권 전반에 관한 얘기들을 따다다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 <실종된 청소년들의 말을 찾습니다>에서는 올해 있었던 청소년들의 "인권 찾기" 움직임을 다룹니다. 청소년들과 권리, 혹은 집회 등의 단어가 잘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널에서 직접 작성한 글로는 마지막인 네 번째 글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대략의 의의, 한계점들을 짚어 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글에서는 직접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민을 상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_^

# 학교에서, 거리에서..

석영 | realmbl2@hanmail.net

### 하늘/단풍

오늘도 아침 공기는 차갑다. 앗, 자칫하면 지각이다. 뛰어야겠네. ... 과당!!

### 하늘

아야야.. 뛰어가다 맞은편에서 뛰어오던 사람과 부딪혔다. 얼레? 얼굴을 보아하니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머릿도 노랗고 교복도 안 입고.. 학교에 안 다니나? 아무튼 이럴 때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꾸벅 인사하고 다시 지하철역 입구로 달려간다.



### 단풍

아이씨.. 누가 갑자기 들이받은 거야. -- 죄송합니다 하고 웬 교복이 험러벌떡 일어나 지하철로 뛰어간다. 나도 잘못했는데 하면서 꾸벅, 인사를 했지만 어느새 달려가고 없다. 학교라, 강제로 수업 듣고 연어맛고 하는 게 싫어서 뛰쳐나온 게 1년 전이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나만 이해했지, 이런, 늦겠다. 얼른 버스 타야지.

### 하늘

정신없이 나오느라 와이셔츠에 마이만 걸쳐 입고 나왔다. 넥타이 매고, 조끼 입고, 지하철 창문에 비쳐 보이는 내 모습을 점검한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매일 이렇다 보니 신경도 안 쓰인다. 대중 교통에서 안 걸릴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아침에 지하철을 타다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교복을 입은 사람과, 교복을 입지 않은 사람.



### 단풍

백, 환승입니다. 청소년입니다. 기사가 힐끔 나를 쳐다보다. 교복을 안 입어서 그런가.. 뭐 신경 쓰지 않는다. 어쨌든 오늘은 월급날, 내 손으로 번 돈, 첫 월급, 아 이런 생각만 하니 기분이 좋다. 학교를 처음 떠났을 때 검정고시 학원도 다녀보고 했지만,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 하는 것도 무리인저라 지금은 쉬면서 알바를 하고 있다. 같이 알바 하는 친구

랑 여행 갈 자금이야.

하늘

야 거기 조는 놈 나와! 아... 잘못 걸렸다. 몸은 피곤한데 흥미도 없는 수업에 앉혀놓으니 누가 안 졸고 버티겠냐고요... 속으로만 투덜대며 앞으로 나간다. 짹! 어, 이게 좀 심하다. 놀라서 빙빙해 있는데 어디서 눈을 치켜뜨냐 며 또 떠린다. 이제는 머리 갖고도 시비다.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학생부장 선생님이 통과시켜줬는데요, 학생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공부 가 되겠어? 너 이번에 성적 좀 올랐어?, 아, 또 시작이다. 가끔 머릿속에 머리 길이와 공부에 대한 집중도는 반비례한다는 이론을 가진 교사들이 있다. 대체 무슨 상관인거냐고. 가정교육이 어찌요.. 오늘 제대로 잘못 걸렸다.



단풍

겨우 시간 맞춰 도착했다. 버스타고 오는 1시간 내내 월급 받으면 뭘 해볼까 하는 생각만 했다. 일단 청소년부터 하는 데 갑자기 아저씨가 담배 좀 사오라고 시킨다. 아.. 편의점 먼데. 그리고 10시부터는 주방에서 일해야 돼서 청소년 안 끌 내놓으면 잠깐 쉴 시간도 없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오늘 받을 월급을 생각하며 참는다. 너 인상이 왜 그래? 불만있어? ....아니요.. 50만원, 50만원만 생각하면서 참자.

하늘

기호 3번, XOX입니다. 어찌요 저찌요 학생회장 선거 기간이다. 우리 반 실장처럼 천한 기호 3번이 쉬는 시간에 유세를 하고 있다. 두발 자유가 어찌요.. 오, 솔깃하다. 정말 가능한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회가 학생부랑 잘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오호 +-+ 저거 다 말도 안돼, 네? 동아리 일로 나를 만나러 온 3학년 선배가 불쑥 말했다. 학생회가 찬다면 다 되는 줄 알아? 매점 메뉴라도 좀 바꾸면 잘 찬거지 하긴, 중학교 3년 내내 홀몸시간에 올라간 건의사항 관철되는 거 못 봤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인데...

단풍

손님들 좀 갔어? 옆 식당에서 알바하는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는다. 삼각김밥이다. 내가 알바 하는 집은 고깃집이고, 친구가 알바하는 집은 식당인데 밥도 안 준다. 점심시간도 딱히 없고(바쁘니까) 2시쯤 좀 한가해지면, 쉬는 시간이라고 30분 준다. 또 청소년해야 된다. 아,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너무 쉬는 시간도 없고.. 담배를 꺼내 문다. 친구랑 식후명을 즐기는데 아니냐 다를까 오늘도 제나가던 아저씨의 시비가 시작된다. 너들 몇 살이야? 로 시작해서 부모님도 알아? 까지 이어지는, 아니 내가 담배 피는데 무슨 상관이니냐고... 그냥 가서



요 정도로만 말해도 싸가지가 없다는니 가정교육이 문제라니 별 소리가 다 나온다. 아, 정말 이런 꼴 보기 싫어서 연색까지 했는데, 정말 싫다.

하늘

어김없이 찾아온 보충수업/자율학습 희망조사. 이번에 전교 100등 밑에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0에 체크하라고 한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당연히 X에 체크하고 제출했더니 담임이 좀 보자고 한다. 너 아까 수학 시간에 선생님한테 싸가지없게 했다며?, 네? 아니, 그게 제가 조금 졸았는데.. 야 아무튼 선생님들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너 왜 보충수업이랑 자율학습 안 찬다고 했어? 성적 올릴 자신 있어?, 학교에서는 공부가 잘 안되는데요,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네. 꼭 머리 나쁜 애들이 그런 핑계를 대요... 계속 입씨름이 오간다. 결론은 하나 부모님한테 연락드린다

단풍

경찰서, 라는 곳에 처음으로 왔다. 아, 정말 억울하고, 눈물 나고, 지금은 또 무섭기까지 하다. 고깃집 아저씨와 싸웠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아저씨, 이제 가봐야 되는데요.. 월급.. 이라고 했더니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준다고 한다. 아니, 난 오늘까지만 일하기로 돼있었는데! 막 떠졌더니 가게에 돈이 별로 없어서 못 주겠다 고 했다가 어디서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이나 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혼계를 늘어놓는다. 너무 억울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가,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경찰들도 너 나이가 몇이나 부터 시작해서 머리 색깔로 시비 걸고, 학교는 왜 안가냐고 그리고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님 모셔야라 라고만 대꾸한다. 반면에 고깃집 아저씨에게는 꼬박꼬박 존댓말이다. 아, 정말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게 어딨어 정말

하늘/단풍

터벅터벅 걷는다. 오늘 하루 닥친 일들이, 너무나 억울하다. 무시하고,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님 타령만 하고, 그게 어른들이다. 하긴, 오늘 좀 심했던 거지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였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테고.. 나도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걸까, 앞으로 몇 년은 그저 꼭 참고 버티는 방법 밖에? ~\*



# 미성숙의 신화, 이걸 아니잖아

서명 | realmbl2@hanmail.net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아니면 어디에서든 우리는 청소년을 만날 수 있다. 눈앞의 청소년을 보라, 그/녀들은 “인간”인가, 아닌가?

## 인간이기 전에 학생이고

학교는 인권의 성역이다. 학교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사회 구성원들의 목인 속에서 교육이라는 성스러운 이름하에 유린되는 공간이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전문 아닌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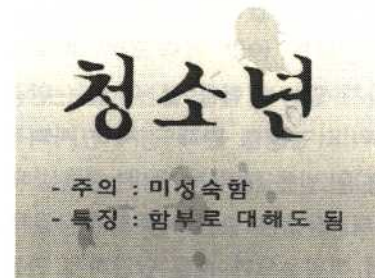
학교	침해 사례
H중학교 (서울 성동구)	새 교장이 매일 아침 순회를 돌며 욕설. 5월 중순 경 “두발자유” 배지를 달고 다녔는데 교장이 불러서 혼내고 손으로 체벌. 교장은 체벌 기본이 8대. 학생이 컴퓨터를 켜다가 도망가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욕설과 함께 싸대기를 6~7대 정도를 때림.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신체를 직접 이용한 체벌. 학교가 끝나도 교문 앞에 지키고 서서무조건 3시 10분까지 학생들을 못 나가게 함.
Y고등학교 (서울 용산구)	두발규정은 거의 반삭인데 앞머리만 좀 길게 되어 있음. 교문 앞에서 두발단속 및 용의복장 검사해서 기합과 체벌이 심함. 교문에서 가방이 가벼워보이거나 책이 3권 이하 들어있는 듯하면 가방열고 소지품 검사.
C고등학교 (서울 동대문구)	보충수업은 선택이지만, 야간자율학습은 강제로 시킴. 2006년 9월 15일날, 야간자율학습 도망간 사람들을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꿇고 의자 들게 한 뒤 허벅지를 3대씩 때렸고, 그 상태로 수업을 듣게 했음. 9월 19일 두발단속 돌면서, 뒷머리 끝선이 손에 잡히거나 옆머리가 보이는 학생들은 야구방망이로 맞음.
T고등학교 (성남 분당구)	2006년 6월 26일 월요일 두발단속. 두발규정은 앞머리는 눈썹 위 옆머리는 귓구멍을 넘어선 안 되고 뒷머리는 1cm. 두발검사를 하는 날에는 아침등교시간에 1, 2, 3학년 건물 문을 봉쇄하고 각 학년 건물 앞에 해당 학년 학생들을 세워놓음. 교사들은 학년마다 5~10명이 가위를 들고 있음. 머리가 조금만 길어 보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자름. 이번 두발검사 때는 바리깡도 다시 사용. 여학생은 검사를 잘 안 하는 편. 학생들이 두발에 대해 언급하면 체벌.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인간 -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교사 - 학생의 관계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통제권은,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인권보다도 우선한다. 그렇기에 교사는 자신들이 아닌, 학생들이 지켜야할 규칙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때릴 수 있고, 학생들의 소지품을 허락 없이 뒤질 수 있다. 이 모든 행위가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이뤄진다. 두발규제, 체벌, 소지품검사, 이런 것들이 모두 인성을 위한 생활지도, 공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지도이다. 이런 통제에 잘 따르는 학생들은 학생다운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문제아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학생다운’이라는 말이 ‘배움’에 대한 교육학적 통찰과 관계없이, 철저히 ‘비학생’들의 관점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배우는 이들은 옹모가 단정해야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며, 가르치는 이들의 통제를 잘 따라야만 잘 배울 수 있다는 생각. 이 ‘학생다운’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의 ‘머릿수’는 절대 다수이다. 하지만 수가 많다고 해서 힘이 강한 것은 아니다. 학교라는 구조의 최정점에는 교장이, 다음으로는 교감과 교사들이 위치하며, 학생들은 사실상 아무런 권력 없이 통제받고 있다. 극소수의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학생회도 별 힘이 없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질서조차 스스로 수립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속한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아무런 권력이 없는, 그야말로 ‘학교 안에서 가장 다수지만, 가장 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학생이 아니어도, 어른은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 밖으로 나오면 상황이 달라지는가 하면, 전혀 아니다. “청소년입니다”라는 버스 요금기(?)의 소리에 어색해 한 적 있는지. 교복이 인간과 학생을 구별하듯,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청소년과 어른을 구별 짓고 있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권이다. 애초에 노동의 기회 자체가 제한적으로 부여되었으며, 어찌다가 알바를 하게 돼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임금체불이나 시간 외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산재,

부당하고, 여성들의 경우엔 성희롱/성폭행까지 성인들의 노동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청소년 노동의 현실이다.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 계약서 작성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들다.

경제적 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다.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이다. 직접 권리에 대해 성찰하고 배워갈 수 있는 통로는 차단돼있고, 그렇다고 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사회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 청소년들 스스로 인권의식을 싹틔우고 권리를 찾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구조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정치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게끔 구성되어 있다. 현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법은 한 시대의 의식을 드러내주는 좋은 지표이다. 우리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민법 909조: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 현실도, 법도 청소년의 권리를 청소년이 제대로 누릴 수 없게 구성되어 있다. 이거 너무 뻘한데?

미성숙의 신화, 제발 그만!



“청소년/학생은 미숙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없으니 어른들이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험 없이 그에 관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아주 기초적인 교육의 ‘상식’조차 무시하는 ‘오류’이다. 하지만 이런 몰상식이 현실에선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수동성을 학습]하게 된다.

‘미성숙의 신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오늘도 어디선가 청소년들의 인권은 잘려나가고 있다.

이 재생산의 고리가 끊어지려면, 청소년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발달 과정에 있다는, 그리고 분명히 현재 경제적 사회적 약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들은 비청소년들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도움’은 일방적인 ‘감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갑은 손이 따뜻할 수 있게,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원치 않을 때 손에 끼워놓으면 손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한다. 제대로 된 [보호]는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가뒤통을 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억압일 뿐이다. 그/녀들 스스로, 청소년의 권리를 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때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다시금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날일 것이다.

# 실증된 [청소년들의 말]을 찾습니다!

서명 | realmb12@hanmail.net

2006년 9월 16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 손에 든 촛불, 색색의 피켓들. 각종 사진들, 앰프, 마이크. “지금 이곳에서는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중입니다”라고 외치는 이들. 네, 이곳은 집회 현장입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네요. 개사곡에 맞추어 마임도 하고, 사회도 보고, 발언도 하는데.. 대학생들인가? 사회인들? 아닙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입니다. 물론 청소년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도 집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촛불을 들고, 학생인권법 통과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런 현상이 어색하십니까?

## 청소년들이 움직인다

우리 사회에서 비청소년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꼭 그만큼 자신들이 ‘편하게’ 살고 있다. 비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니까” 혹은 “보호해줘야 하니까”라는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이 꼴사나운 행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도’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미화된다. 이 ‘교육’과 ‘지도’라는 말이 가지는 강력한 포스는, 청소년들이 그 부당함에, 그 부조리에 대해 말하는 것까지도 억압해 왔다.



하지만 이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말하게 된 것이다. 이전부터 물론 이런 움직임들은 있어왔지만, 올해 특별히 굵직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권리’라는 문제가, 청소년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 지난 4월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Y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 100여명이 점심시간에 “두발규제완화”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10여분동안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참가 학생은 물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학생까지 체벌하고, 학생 7명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위가 과도한 두발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이 알려지고, 청소년인권단체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2005년 5월, 입시교육 반대 청소년시위

# 지난 5월에는 서울 종로의 D고등학교 3학년 오병헌씨가 학교 측의 인권침해를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됐다. 오병헌씨는 1인 시위 이후에도 징계를 내리려는 학교와 싸우면서 지속적으로 학생인권문제를 알려내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서도 D고를 항의방문하는 등 오병헌씨의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

# 지난 8월에는 수원 C고에서 학생들 100여명이 참석해 두발자유 시위가 열렸다. C고 학생들은 또한 8월 29일 야간자율학습 쉬는 시간을 이용해 대대적인 촛불시위를 벌이고자 했으나, 사전에 학교에 적발되어 무산됐다. 교사들은 소지품, 사물함 검사를 통해 관련 물품을 모두 압수하고 쉬는시간을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고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위를 원천봉쇄했다.

### 청소년들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른바 '수원 C고 사태' 이후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서는 9월 6일, C고로 직접 '스쿨어택'을 갔다. 각종 인권침해 관련 사진들을 전시하고, 폭죽을 나눠주는 등 교문에서 여러 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은 교사,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급기야 교장실에서 면담까지 진행했다. 끊임없이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논리를 반복하는 학교당국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되뇌는 인권단체, 분명히 학생인권에 관한 논의인데, 그 자리 어디에도 '학생'은 없었다.

청소년인권단체의 이런 움직임은, 청소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나열했던 사례들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낼 때야말로 바로 '청소년인권'이라는 말이 제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내 아이를 사랑하는 길' '이게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인 이밝은진씨는 "청소년들이 삶의 주인으로서는 것이 못마땅한 이유는 존중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며, 내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을 스스로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당당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 비청소년들이 지금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소통의 노력 아닐까.

## 학생인권법안을 아십니까

석영 | realmbl2@hanmail.net

올 한해, 청소년인권문제에 관해 제도 차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법안>이다. <학생인권법안>의 정식 명칭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의했다. 올해 초 발의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학생인권법안>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 학생인권법안?

학생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다.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

마.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바.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

사.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

의미와 한계

먼저, 이 법안은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생활관련 학칙 개정시 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관련된 일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학부모와 학교 당국으로만 구성되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도록 규정해, 학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체벌은 물론 그동안 꾸준히 학교 내 인권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강제 자율학습, 각종 차별, 비민주적인 징계 등이 금지되며,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인권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학생인권법안>은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던 이들의 문제의식을 폭넓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의가 있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법안>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법안 자체의 한계는 몇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추상적인 구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법안의 골귀 자체가 가지는 한계보다도,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지금도 규정에 어긋난 체벌, 0교시 수업과 강제 야간 자율학습 등은 금지되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법안에 담긴 내용들은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비슷한 얘기지만,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권리의 주체가 되는 때는 입법을 알리는 의사봉이 두드러지는 순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

를 실현시켜 나갈 때이다. 제대로 된 인권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학생인권법안>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위하여

몇 가지 한계점이 있지만, <학생인권법안>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분명히, 학교현장에서 인권의식이 싹틀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몇 달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학생인권법안>을 이제는 깨울 때가 됐다.

학생들은 유권자가 아니다. 그래서일까, 여의도는 이 문제에 무관심하기만 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청소년인권단체들이 나서서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여기서 소개하는 간단한 실천 하나, 학생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 <http://sturight.1318virus.net/>

함께 교육저널을 채워갈 분들을 찾습니다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있던 교육저널이 학번불문! 단대불문!  
어찌어찌 결국 이렇게 시작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이제 반이나 남았습니다.  
앞으로 꼭 펼쳐질 교육저널의 나머지 반을 함께 채워갈 분들을 찾습니다 ^^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읽어보고 그냥 좀 매긴다 싶으시다면,  
아니면 이것도 즐이라고 내놓았냐고 항의하고 싶으시다면,  
주저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 : 석명 (018-613-3776) > <



# 어린이 청소년 인권 - 교육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기

2006 학생의 날 맞이 예비교사 어린이·청소년인권연대선언 수기

2006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전국의 예비교사 154명이 <예비교사 어린이·청소년인권연대 선언식>에 직접 참여, 연서 등의 형태로 동참했다. 서울대 교육저널에서는 이 선언식의 실무를 맡아 진행한 口스씨(관악 27대 사범대 학생회 사무국장)에게 선언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글을 부탁했다.

교육은 관계맺음을 전제로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 이전에, 한 인간 대 인간의 만남. 그 만남 위에서 교육은 시작될 수 있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가르침과 배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앞서 우리는 누구와 만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

근대교육은 '미성숙' 과 '성숙' 을 명확히 구분 짓는다. 이 구분에서 누구와 만날 것인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대답이 내려져 있다. 미성숙한 존재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 곧 교육이기에 만남의 과정은 통제와 강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 패러다임 내에서 교사는 성숙한 존재이기에 학생에 대한 판단을 자의로 내릴 수 있으며,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은 교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비극이 싹튼다.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고, 소지품을 뺏기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가 모두 미성숙을 성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로 정당화된다. 상처와 수치심은 애정의 흔적이 되고, 폭력은 교육으로 위장된다. 교사들의 자의적인 경험에 의해 학생은 규정되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은 체험되지 않는다.



'미성숙' 과 '성숙' 의 구분, 그 이분법은 권력의 위계에 다름 아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사들과 어린이·청소년의 생각판단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은 '미성숙'을 이유로 곧 '틀림' 이라 규정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문제가 단순히 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 보충·야자 금지라는 조항의 실천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위계화를 뒤엎는 것, 곧 '인간'임을 인정하는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문제는 그/녀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를 멈추고, 그/녀들의 '다름' 혹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름' 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다름' 을 '같음'으로 묶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현재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 현실 너머에 존재한다. 지배와 통제의 메커니즘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와 통제의 메커니즘에서 교사는 지배자의 위치에 선다. 지배와 통제의 메커니즘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영향으로부터 교사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분명 인정되지만, 현실에서 학생인권 침해의 전면에 교사가 위치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예비교사 어린이·청소년인권 연대 선언은 이 위치에 대한 고민에서 기획되었다. 현실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학생들과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는 것. 더불어 현실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성찰해 가자는 것. 그것이 선언을 통해 남기려고 했던 것이었다.

인권의 문제에 있어 인권침해는 단순히 피해자만의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동시에 빼앗는 자의 인간성 파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간 대 인



간의 만남을 추구하는 교육에 있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과 만나게 되는 교사 또한 온전한 인간성을 교육의 과정에서 지켜나간다고 보기 어렵다. 죽은 듯이 조용한 교실에서 모두 같은 길로 머리를 자른 학생들과 인간이 뭔지, 자유가 뭔지 이야기하는 것만큼의 비극이 어디 있을까, 학생자치조직이 아무 힘을 얻지 못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만큼의 희극이 어디 있을까. 그런 교육에서 학생 못지않게 교사 또한 소외된 건 마찬가지이다.

결국, 학생인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인 동시에 예비교사인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학생들이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시체처럼 여겨질 때, 그/녀들과 만나야 할 우리 또한 시체와의 만남을 이어나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언의 명칭이 '지킴이 선언'이 아니라 '연대 선언'이라 이름 붙여진 것도 이 때문이다. 단순히 위에 있는 우리가 너희들의 인권을 지켜 주겠다고 아니라, 가해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성찰하고 벗어던지겠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인간됨을 실현하겠다는 것, 그렇기에 투쟁하는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하겠다는 것. 이것이 곧 '연대' 의 의미이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흔히 교육이라 생각해왔던 것-미성숙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고유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 존중의 과정에서 함께 변해 나갈 방향을 고민해가는 것-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문제는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거기서부터 통제와 지배의 메

커니즘을 성찰하고 구체적인 실천-두발자유, 체벌금지, 소지품검사 금지 등-을 벌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당장 체벌이 사라진 교실, 통제가 사라진 교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도저히 말로는 안 통하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도록 구구단도 못 외우는 학생들에게 때려서라도 구구단을 외워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선언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만난 많은 선배교사들 그리고 예비교사들의 근심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는 인정해야 한다. 첫째로 그녀들의 행동이 옳지 않은 만큼, 그 행동의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방식도 옳지 않다는 것, 둘째로 그것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녀들의 '미성숙함'을 하소연하는 우리 또한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미성숙'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어쩌면 답은 이 한계에 대한 인정 가운데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성숙' 이면에 놓여있는 지배와 억압의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한계와 상처에 함께 아파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야 우리는 혼란과 욕심으로만 가득 차 보이는 세상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 희망의 언어, 사랑의 방법,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인간됨의 실천, 다름 사이에서 소통하기-그것이 곧 미성숙의 신화에 가려져 있던 교육의 본래 이름이 아닐까? 어쩌면,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육이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 가는 과정이진 않을까? 우리는 프레이리의 이 말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P. Freire 『교사문-기억이 가르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4)

글 : ◻ ㅅ [므스] | 27대 사범대 학생회 사무국장

## Interview! -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들은 꽤 오래 전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다. 서울대 교육저널에서는 이런 운동들의 의미를 짚어보고, 현재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올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를 인터뷰하기로 했다. 날씨가 쌀쌀하던 11월의 어느 날, 해화동에 있는 한 밥집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 주형씨(<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와 경내씨(<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저자)를 만날 수 있었다.

#### 먼저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어떤 단체지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경내A)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 관련 단체들이 말 그대로 네트워크로 모여 있는 조직이에요. 제가 볼 땐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청소년 단체도 있고, 교육 단체도 있고, 인권 단체도 있는데 청소년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청소년 인권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매년 많은 작은 단체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향이 반복됐고, 그러다 보니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운동이 발전할 수 있겠나, 청소년 인권에 좀 쫓아 박는 사람이 있어야겠다(웃음), 그래서 <청소년인권운동>에 대한 전략도 고민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고, 자신을 청소년인권활동가로 정체화해보자, 이런 고민들을 했죠.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하나의 단체로 만들기는 좀 힘드니까 기존에 있는 모임들을 꼬드겨서 네트워크 정도로 묶어 내보자, 그런 생각에 몇 개 단체가 모이게 됐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주형씨와 경내씨

#### 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 그럼 구체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경내A) 올해 3월 18일에 첫 모임을 가졌어요. 2월 18일에 "청소년 인권 운동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는데, 이제 워크숍을 계기로 만들자, 뭐 이런 의도로.(웃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심각하다, 나아지는 것도 없고,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결론

으로 "같이 고민을 함께해보자"라고 후속 모임을 제안해서 첫 모임을 갖고 결성하게 됐죠.

**올해 3월이면 생각보다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런데 결성된 지 얼마 안 된 단체치고는 굉장히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내A) 함께 활동하면서 보면, 이 친구들이 물을 못 만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무언가 활동해야 되겠다고 의지는 많은데,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는 잘 못 풀어내다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게 되니깐, 의지도 크고 활동도 재밌고 해서 상승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네트워크>에는 여러 단체가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체계가 조금 복잡해질 텐데**

경내A) 지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그리고 개인활동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결성될 당시에 여러 단체들이 함께하는 거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한 단체 주도로 가면 문제가 있다는 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고르게 각 단체에서 코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자, 이렇게 해서 코디 3명을 내고 코디가 일이 진행될 때에 챙기는 역할들을 좀 하고, 나머지 활동가들은 각 팀에 소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3개월 단위로 코디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 연속성 등의 문제가 있고 해서, 6개월 단위로 하기로 했죠. 지금 2기 코디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네트워크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내A) 지금 교육팀, 역사연구팀, 공동현안대응팀 이렇게 세 팀이 굴러가고 있어요. 역사연구는 청소년 인권 운동의 역사를 발굴해서 기록하는 일을 하는 건데, 기존에 청소년인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찾아내 남긴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 네트워크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교육팀이 있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활동가들이 직접 몸으로 역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저항 의식은 강한데, 그것이 또 반드시 인권 감수성과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청소년 단체들이나 인권모임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 관계의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완전히 흩어진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인권 얘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인권적이지 못한 건데, 그

친구들이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키워주지 않아서니까.. 일상에서 함께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도 교육의 과정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을,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해보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거죠.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여름방학에는 같이 인권캠프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활동의 대부분은 공동대응, 그러니깐 빠르게 직접행동을 하는데(웃음) 올해는 두발자유를 이슈화하고, 정책 측면에서는 학생인권법안에 주력했어요.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청소년들의 힘으로, 기존 단체 몇몇이서 의견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힘으로 이 법안을 얻어내야 한다,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해왔죠. 여름에 전국행진 했을 때도 그렇고, 하반기 활동에서도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안이 주요 모토였고.

**아, 그렇군요. <네트워크>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인권운동 전반에 관한 질문인데요. 청소년 인권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유, 청소년인권운동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내A) 우리 사회에 많은 약자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조직을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조직하기에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는 "약자들 가운데 약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이나, 복지 시설 수용돼있는 분들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이죠. 기존의 청소년 운동은 청소년들이 아니라 단체를 꾸려나가는 성인들이 주도해왔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가 나서서 움직일 수 있는 터를 만드는, 청소년 인권 운동이 좀 필요하다,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나라의 감옥을 보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상황을 보면, 그 사회의 인권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거고, 청소년 인권운동을 독자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움직이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사람이 결코 물러 설 수 없는 최저선, "이건 도저히 포기하고 못살아"라는, 생활에서 우리나라는 의식/감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랑말랑할 때부터(웃음) 그런 걸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사들과, 부모들과,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점들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이 의미를 가지는



것 같구요.

좀 더 구조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이나 학교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정말 핵심적인 제도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하는 방식도 구조화된 방식이구요. 그 구조를 깨지 않고 억압/위계가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조를 직접 공격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이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인권운동의 역사가 10년 정도 됐고, 사실 청소년에 대한 어떤 억압들이 존재한다는 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들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주형A) 그냥 제 생각인데요. 예전에 같이 활동하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청소년 인권을 얘기할 때는 새로운 보수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전에 학교현장에서도 겪었듯이, 혹은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겪고 있듯이, 어른들 그러니깐 비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좋은 어른/부모님/선생님들도,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걸으로는 좋은 모습처럼 보인다 해도, 그 ‘미성숙의 신화’ 자체가 이미 하나의 억압기제잖아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면 ‘너희는 아직 이런 거까진 못하니깐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폭넓게 공유되어 있어서 힘든 점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청소년 인권이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교권이나 친권과 같은 비청소년들의 권리에 의해서 막히는 경향이 있어서 청소년인권 얘기를 풀어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경내A)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모든 인권침해에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감옥 내 재소자들을 예로 들면, 아무리 재소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려고 해도 결국엔 감옥이라는 구조가 갖는 속성으로 인해서 인권침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격리되어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자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거고, 그래서 감옥인권운동을 하더라도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거나 비인간적인 처우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 문



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사실 감옥을 없애야하는 거고. 청소년인권문제도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공간을 완전히 재구성하지 않으면 학생인권 문제는 사실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 학교를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싸우기도 하고. (웃음) 그래도 그 구조라는 게 아주 견고한 바탕이고, 벽이고, 틀인 것 같지만 그것의 일부로서 사람들이 있는 거니깐, 바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구조를 눈으로 보고, 문제가

있는 구조라는 걸 인정은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금이라도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고.

청소년 인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운 건, 이 문제가 불합리하다, 혹은 이걸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로서는 너무 부적합한 게 아니냐, 정당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그 인식을 끌어내는 데까지만 해도 너무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리니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전통으로 자리 잡혀 있거든요. 청소년인권운동은 어린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오래된 관점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조를 눈으로 보게 한다, 그리고 구조에 균열을 내는 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의식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또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바꿔내는 운동들이 필요한데, 청소년인권문제를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경내A) 지금 “학생인권”이라는 말이 교육기본법에 딱 한 조항에만 나와 있어요. 그냥 별 의미 없이 단조롭게 나와 있고, 힘 있는 조항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없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과 관련해서 몇 개 법안들의 예가 있는데, 그 법이 아무리 유명무실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나마 그 사람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청소년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학생/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서 확인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서 정말 현실의 학교가 변화하는가, 사실 그런 기대는 별로 안 해요. 그 법안을 구체화하는 정책들이 이어져야 하는 거니까. 이건 교육당국의 책임인데, 지금 교육당국이 하는 일이라고는 종이문서 하나 내려 보내는 게 전부거든요. 그 다음에는 학교 재량으로 그걸 구워먹든 삶아먹든, 휴지통으로 직행하든 교장 서류철에 모셔

놓든, 전혀 관여하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정책실현 가이드가 나와야죠.

또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느꼈을 때, 당장 문제를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아니거든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겪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필요해요. 그 핫라인은 물론 정부가 책임지고 개설해야겠지만, 직접 활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이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학교 교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잖아요. 인권의 기준에 비추어서 교칙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교육당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몫인데, 아주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돼요. 학생인권법안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현실에선 힘이 없죠. 학교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추상적이어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가 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인권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학생인권, 이런 건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해요. 학교현장에서도 필요하고,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꼭 들어가야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하나 하나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동안 청소년인권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지**

경내A)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한 번은 스쿨어택 갔을 텐데, 스쿨어택은 갈 때마다 경찰이 출동했거든요. 경찰차를 보고 딱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 본질에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라는 공간을 타격하는 현장은 국회도 아니고, 막연한 거리도 아니고, 바로 여기구나라는, 청소년들의 직접행동이,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건데, 물론 당연히 살짝 걱정도 됐죠. 아씨 내가 (책임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야 되나? 라는 (웃음) 그 순간이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전국행진 갔을 때였는데, 전주 같은 지역은 <나르샤> 같은 단체가 있으니깐 이미 활동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울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인권운동의 불모지예요. 그런 곳에 가서 처음으로 장을 펼쳤을 때, 그때 참 뭔가 이런 거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지역에서 활동을 모색하는 친구들에게 힘이 된다는 생각을 했죠.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요.

주형A)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11월 3일 명동에서 교육부까지 ‘학생인권탕탕볼 굴리기’ 행진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그 날, 명동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구호를 듣고서 저희들에게 응원도 해주고 같이 행진하고 했던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있었어요. 남양주에서 올라왔다고 한 것 같았는데, 그 학생들이 되게 거칠다고 해야 되나? (웃음) 그 나이 때 남학생들이 좀 그렇잖아요. 입도 걸고 행동도 걸고. 그래서 사실 조금은 당황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른들 중에서 그 학생들보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더 나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화도 나고 방금 전까지 당황해 하던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되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나도 어느새 미성숙이란 단어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자주 실수를 범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날 제 자신을 떠올리면서 반성해요. 아직 멀었구나 하고요. (웃음) 그리고는 이렇게 다짐하죠. 인권이란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자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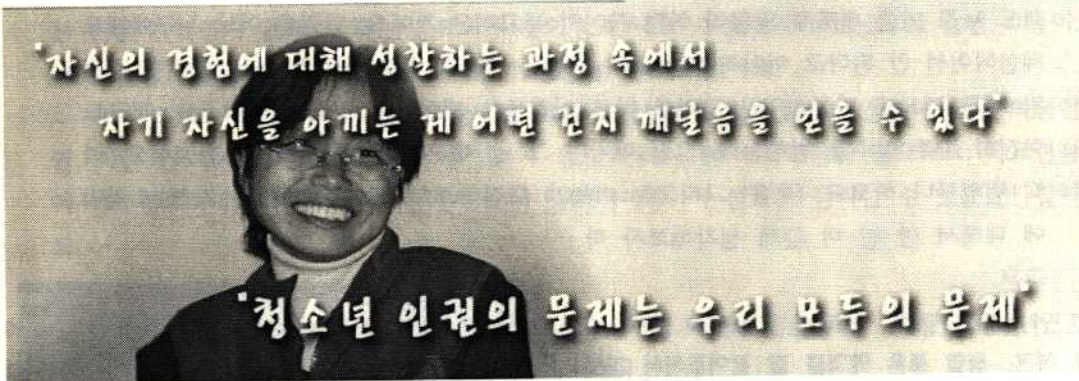
**긴 시간, 정말 좋은 얘기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면서 지금 비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도 비청소년으로 살아갈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형A) 캠페인을 나가거나 서명을 받으면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세요. 학생인권법안 통과 서명 해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물으시고요. “이거 중 고등학생이 아니라도 해도 되요?” 많은 대학생 분들이 자신과 소위 중고등학생으로 대표되는 청소년을 동떨어진 존재로 인식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흔히들 하는 말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온 순간, 저는 ‘자유인’이 된 줄 알았던 거죠. (웃음)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한 자유인, 지극히 일반적인 정상인은 없잖아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뿐이지 우리는 어디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억압을 당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제재를 가하기도 하고요. 결국 그런 점에서 청소년인권이란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만의’ 인권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청소년이 해방되는 순간 미성숙의 신화, 실수의 신화에 의해 억압받던 모든 비청소년들이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대학생들도 역시 청소년인권문제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일정부분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같이 고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

경내A)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당했던 경험. 학생 시절 인권을 침해당하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교사가 되든, 학부모가 되든 되지 않든, 누군가의 친구가 되든, 누군가의 언니 오빠로 살든 간에,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외면하고 타협했던 기억이 있을 거고, 개기다가 상처 입은 경험도 있을 거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비청소년이라고 해도 학교와 비슷한 억압을 안 당하지는 않거든요. 일터도 그렇고, 대학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성찰하면서 자기를 정말 아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면 청소년 인권 문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지금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게 조금 더 공감대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석영 | [realmb12@hanmail.net](mailto:realmb12@hanmail.net)

## After service

교육저널에서는 한 번 비충있게 다룬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룰 예정입니다. ^^

문화비평

# 명예의 목적

팬이 | [slowlife@jinbo.net](mailto:slowlife@jinbo.net)

『연애의 목적』은 문제가 많은 영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들먹이려 하는 이유는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교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꽤나 사실적으로 교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뭐, 기타리스트인 이병우가 연주/감독한 음악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취향이 더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글을 전개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영화는 불씨를 지퍼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 “왜 하필 이 영화인가”라는 질문에 이 이상 답하지는 않겠다. 사실, 이 이상 답하기도 어렵다.



영화 속의 교사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다. [‘그냥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필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길 바란다.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다.”(맑스)] 흥과 잘 생각만 하는 유림이나, 맛있는 밥 먹을 생각만 하는 유림의 선배교사가 보이는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교사’와 ‘학교’라는 배경을 눈치 채는 순간 이 사람들은, 특히 유림은 심각한 ‘문제의 인물’이 된다. 영화의 시선이 유림의 시선, 그리고 남자들의 시선과 여러 장면에서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흥과 유림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지속적인 유림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잊지 말자. 혹 “어쨌든 그건 사랑이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독자께서는 다음 줄부터는 더 이상 읽으실 필요가 없으니 조용하게 덮어주시라. 아, 그래도 읽고 나서 당신의 생각에 조그만 변화라도 생길지 모르니 다시 펴서 한번 읽어보시라.

성폭력은 사랑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림은 ‘교사’보다는 ‘인간’으로서 더 문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해결을 위한 공적인 소통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몇 명의 남자 장학사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일단락 짓기에 바쁘다. 과거와 현재에 대

한 소문, 이로 인한 흥의 상처는 자신들의 속덕거림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입을 막기에만 급급하다.

닭았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은 일어난다. 원칙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해결을 이뤄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의'를 위해 '실수'를 물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도 건재하다.

유림은 학교에서 쫓겨난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추측할 수 있다. 유림이 쫓겨난 이유는 '성폭행' 때문이 아니라 '학교의 명예' 혹은 '교육계의 명예' 때문일 것이다. 만약 성폭력이 학교의 명예와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면 유림은 퇴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식중독 사건도 학교의 명예와 관련되면 은폐되고, 학생인권을 부르짖는 학생에게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리는 곳이 학교이다. "설마 학교가, 교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로 이 학교의 '명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언제나 '좋은' 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라봐야만 하는 곳, '훌륭한' 교사들과 '훌륭한' 학생들이 있는 곳, 이런 곳이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명예로운 학교'의 모습이다. 이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이 보이면 학교의 '명예'는 실추되는 것이다. 학교는 '훌륭한' 곳이어야만 한다.



명예로운 공간이어야만 하는 학교?

성폭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성역압적인 문화 속에서라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문화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성찰하고 변화시켜가려는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다. 학교는 성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아니라 '충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아야만, 인정해야만 학교는 변할 수 있다.

학교의 '명예'와 같은 것이 교사의 '도덕성', 혹은 '완벽함'이다. 교사는 학교에 배치되는 순간 완벽한 도덕적 고결함을 지닌 인간이 되기를 요구받는다. 이를 요구받는 순간 교사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나아가다 스스로를 그런 인간과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자신이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비롯한 많은 것들에 무지하면서도 많은 교사들은 사실은 모른다. 혹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변화는 그친다. 교사는 학교라는 거대한 기계의 나사로, 기능적 인간으로 고착된다.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위험하다. 그래서 교사는 위험하다.

"어떻게 교사가..."

이처럼 표현은 쉽지만 '교사의 도덕성'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도덕성의 내용

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목적은 분명하다. '권위'를 위해서. '권위'를 잃은 교사는 더 이상 학교에서 기능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며, 자의든 타의든 퇴출된다. '권위'를 잃은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를 포함하여 소위 '어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여, '권위 있는',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모습을 바라지 말자. "내가 앞으로 교사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하지."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서만' 노력하지는 말자. 스스로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자. 교사에게 완전하기를, 도덕적이기를 요구하지 말자. 필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라는 두 인간의 소통이다. 학생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함께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자. 학교라는 현장에서, 한국의 사회구조에서 소통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소통이 없기에 너무나도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교사들은 '틀러먹은' 학생들의 '계도'하기 위해서 여전히도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부족한 아이들'을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길(=좋은 대학으로 보내 주시길)' 바라는 '사랑의 매' 전달식이 열리는 학교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학교는 완벽하지 않으며 완벽할 수도 없고 교사 또한 그렇다는 것, 하지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된다면, 어려운 변화의 첫걸음은 시작될 것이다.

별의별의 미니홈피, 클럽, 페이스북, 티스토리, 선물기행 클럽에는 교육저널의 모든 기사,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자료 등이 업데이트되며, 관련 내용들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대 교육저널

club.cyworld.com/snuedujrn

서울대 교육저널 클럽!!!

http://club.cyworld.com/snuedujrn

# <서머힐>과 <딤스>로 말하는 교육상

현화 | mewa27naver.com

서평

오랜만에 무언가를 쓰려고 한다.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저 한글 2005의 하얀 바탕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커서만이 깜빡일 뿐. 커서가 깜빡, 깜빡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심란해진다. 떨리는 마음으로 읊조려 본다. 내가 과연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무언가가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나는, 교육을 말하려고 한다. 마음속에만 있던 教育. 물론 교육이란 것이 내 맘대로 주절거리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넓은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한번쯤은 마음 속에서 다듬고 성찰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 당연하게 여겨왔던 교육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교육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것들을 교육이라고 말한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길고 긴 수업시간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다. 과목은 왜 이렇게 많은지! 공부할 것은 왜이리도 많은지! 끝도 없는 공부 속에 지쳐갈 때쯤, 나는 대학을 왔다. 과연 나를 대학까지 무사히 키워준 것은 끝도 없는 공부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과가 있었다. 성과 안에서 보람을 찾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교육이라고 불러야 할까? 과연 내가 양질의 교육을 받았던가? 내 고등학교 시절의 부족한 부분이란, 끝도 없이 갑갑한 과목들 속에서 헤엄쳐 나와 누리는 일말의 자유와 같은 것들이었다. 과연 압박감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공부는 없는 것일까? 공부는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다.

얼마전 '자유로운 아이들 서머힐'이란 책을 보았다. 서머힐은 영국의 교육가 닐이 설립한 학교로, 철저한 자유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한 자치로 운영된다. 학교는 삶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일, 곧 흥미 있는 일을 찾아내는 일이며 교육은 삶에 대한 준비과정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육인적자원부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교육?

라는 생각으로, 공부할 자유뿐만 아니라 공부 안 할 자유까지를 의미하는 학습의 자유까지를 허용했다. 강의에는 특별한 교재나 시험이 없으며, 아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만 수강해도 되고, 심지어 전혀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 숙제, 성적표, 석차 등은 없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한없이 나태해지고 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서머힐은 대체로 성공적인 결과를 내어 왔다. 아이들은 실컷 놀고 나면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알아서 한다. 그 공부는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인 만큼 능률도 빠르고, 열의도 대단하다. 내가 가장 놀란 점은 바로 이 점이었다. 아이들이 놀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또한 놀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노는 아이들은 창의력이 비상하다. 아이들은 판에 박힌 대답만을 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고, 그만큼 다양한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암기'과목은 초중고에서 배우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기초에서 심화될 뿐인데, 이런 방식은 학습을 계속해서 중복시켜서 기억력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자칫하면 지루하고 재미없기 십상이다. 이 교과과정을 생략하고 스스로 공부한다면, 교과 과정을 몇배는 더 빨리, 흥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자신이 찾아서 하는 공부이며, 그렇게 된다면 능률이 몇 배나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자유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유가 전제되려면,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혹시 인성이 섬세한 학생에게는 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마음을 감싸안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모두가 어떻게 비슷한 수준의 애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마음이 여리고 섬세한 사람,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외받고 있는 사람 등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는 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한다.

책 '딤스'는 마음을 담고 있던 딤스라는 아동이 선생님과의 교감 속에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저자인 엑슬린 선생님의 지도는 보통의 다른 선생님과 다른 데가 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여 '반영'해주며, 지시하지 않고 격려해 준다. 교육심리학에서 '반영'이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이가 하는 말을 정리해서 되풀이해주는 것이다.

선생님은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놀이치료'를 사용했다. 놀이치료는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면서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놀이 방법을 찾아가면서 아이를 보살피는 방법이다. 물론 유아교육을 모든 교육에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강압에 지친 아이들을 보다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답스가 선생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는 이 말에 나타나 있다. "선생님은 나를 바보라고 안 하세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시고, 내가 못하는 것도 하세요." 아이는 선생님에게 마음을 연다. 답스가 마음을 열어 가는 과정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신기하다. 묵묵히 가만히 들어주고 동조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로 교육이란 어렵듯하지만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바꾸어나가게 하는 힘을 가르치는 것. 강요 없이, 스스로, 자신을 키워 나가는 법을 깨닫는 것. 교육은 결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권위와 처벌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가치가 옳다는 것을 주입시키는 셈이다. 아이는 권위에 반발하지만, 강요에 의해 이를 억누르게 되고, 이 억누름은 스스로 자아를 움아매는 굴레가 된다.



물론 답스나 서머힐 같은 사례가 공교육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예민하고 세심한 아이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편견의 그늘에 가려진 아이 하나하나까지도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사회가

교육의 평등한 분배에 좀더 신경써야 하는 것은 아닌가. 조금씩 조금씩 더 소외받고 있는 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장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애정이 아닐까.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으려면 사회 복지 시스템도 공평한 분배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 개인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요구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되뇌어 본다. 교육이 가진 큰 힘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이후에 누군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러한 마음가짐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섬세한 개인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쉬어가기 - 교육노래

다시 내일을 생각하며

분필가루처럼 묻어나는 피로를 씻고  
창밖에 어느새 밀려가는 아이들 물결에  
어제와는 다를 것 같은 기대를 한웅큼 날려 보내며  
운동장 너머엔 소리 없이 저무는 하루

어둠은 늘 그렇듯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한줄기라도 빛에게 자리를 내주진 않지만  
비극이는 의자에 더 깊이 몸을 기대다  
내 삶에 깊이 새긴 큰 사랑의 꿈을 생각하며

답답한 오늘 하루도 가슴 속에 묻는다  
아침이면 함께 눈뜰 희망을 생각하며



아, 그렇습니다. 저는 안드로메다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개념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 있나요? 당신 관념론자군요?

**개념은 당신의 욕망 속에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내 욕망 속에 있다뇨. 허, 이런 말투로 그대로 옮겨 놓으니까 혼글께서 맞춤법이 틀렸다고 빨간 줄을 그어주시는군요. 슬프지만 진실이죠. 어쨌든, 욕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농밀하게 다가오는군요. 그럼 내 욕망에 따라 개념이 튀어나오기라도 한답니까?

**교육은 중립적입니까?**

음, 제가 사범대생인 것을 아셨습니까? 평소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만... 교육이 중립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교육학개론 책을 펴긴 귀찮으니까, 한번 네X버에 한번 물어봅시다.

**요약**

교육이 정치적 · 종교적 권력이나 사상으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념.

**본문**

프랑스혁명 이후 근대 시민사회는 종교 언어 사상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존중하게 되었고, 따라서 교육도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킬 것이 요구됨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근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국민의 권리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에는 2가지 면이 포함되는데,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서 독립함으로써 중립성이 보장되는 면과 교육내용이 특정 종파나 당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면이다.

한국은 교육법 제5조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음, 일단 교육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교육의 중립성 운운하려니까 어렵다. 어쨌든 교육이란 교육행정과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군. 행정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부를 이와 분리함으로써 정당정치의 당파적 영향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건가. 아, 요새 교육위원회와 시도에 있는 의회를 통합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다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교육의 행정적 측면에서의 중립 때문이겠지?) 그런데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던데,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닌가? 대통령은 특정 정당에 가입했거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견고 당선되었을 텐데, 과연 중립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살포시 의심이 가기 시작하네... 교육위원들도 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던데? 에이, 이게 무슨 중립이야.

**그때그때 달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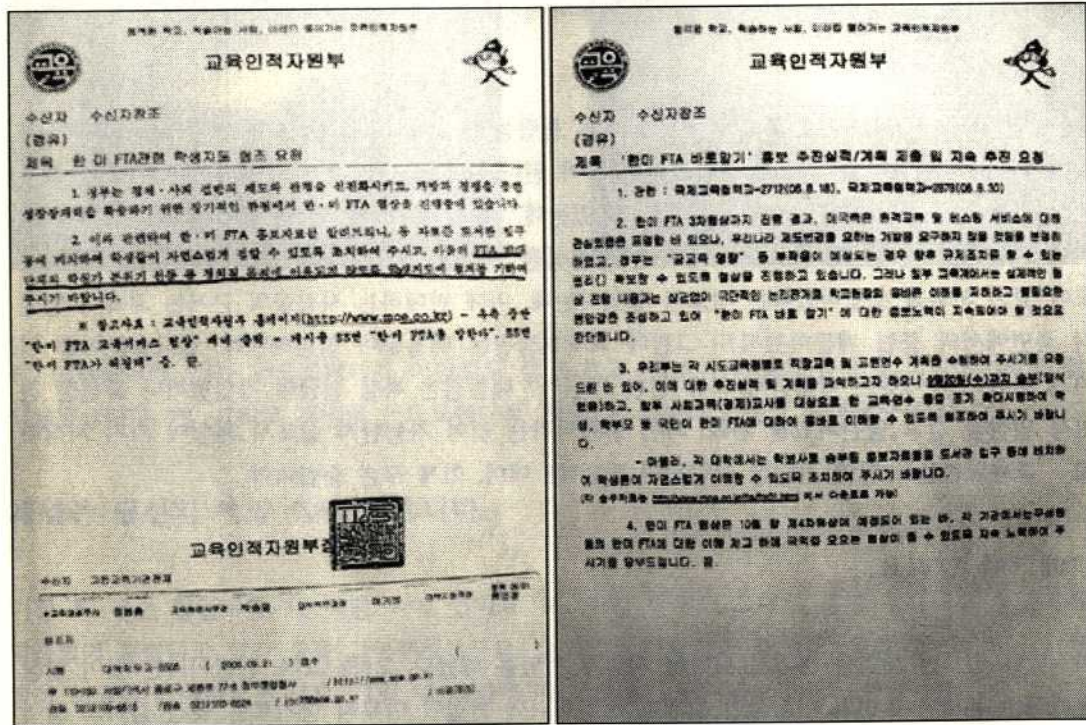
뭐?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뭐하러 저렇게 정의를 해봤다 그럼? 그려, 인간이라는 것이 항상 변해가는 존재며 무언가 이상적인 상태를 지향하니까 현실이 아무리 향기로운 뒷간 같아도 살아가는 거겠지. 그런 불안정한 인간들 사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저 중립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이고 형성해 가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려야지. 교육위원들이 당

1) 대전일보 2006년 11월 14일자 기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반대"

에 가입했어도 서로 다른 당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을테고, 또 바뀔테고, 교육부장관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여기저기서 겐세이를 하면 함부로 못하고, 대통령도 하도 그러니까 못해먹겠다고 그러고, 너무 엄밀하게 따지지 않는 것이 맘이 편하겠수다.

그런데,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 정치적인 내용을 뺀다는 이야기인가? 정치적인 내용은 뭘 말하는 거지? 박정희 나쁜놈 이렇게 말하면 정치적인 건가? 생각해보니 11년 전에 우리 담임이 김일성이 나쁜놈이네 북한에서는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건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가? 에이, 정치적인 내용을 어떻게 빼, 그러면 정치교사들은 뭐 먹고 살라고. 생각해보니 내 전공에 포함되잖아? 아이고. 안되지.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치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 선거를 어떻게 하고, 대통령제가 어떻게 독재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해야 할 것 아냐?

그때그때 다르다니깐. 이 공문을 보세요.2)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http://voiceofpeople.org)>

2) 프레시안 2006년 10월 13일자 기사. "교육부, FTA 찬성 강요... '정치 중립' 실증" 최순영 의원, '한미FTA 홍보' 교육부 공문 공개.

뭐야, 잘 안보이잖아. 몇 가지만 읽어볼까?

"FTA 반대 단체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목(경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등을 조기 확대 시행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한미 FTA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는 학보사로 송부된 홍보자료들을 도서관 입구 등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데, 정부에서 나서서 교육에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건가? 학교가 국정홍보처냐? 자기들이 중립 정해놓고 자기들이 어기네! 정말 그때그때 다르구먼!

### 개념속의 욕망을 알겠습니까?

그래 뭐,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 건 알겠어. 뭐, 그렇다고 해도. 저런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막~ 뭐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도 중립은 지키려고 애써야지! 아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학생들이 이래저래 흔들리면 안 되잖아. 아직 어린애들인데... 가능하면 수업내용에만 충실하게 가르치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교원들, 특히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에도 가입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3)



###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냈습니까?

### 교수는 정당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4)

- 3)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4) 정당법 제4장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교수는 된다고? 교수는 고등교육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교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텐데... 왜지? 아! 교수는 성인인 대학생을 가르치지! 다 큰사람들한테 아무리 편파적인 이야기를 해도 영향을 받을 리가 없잖아? 알아서 다 판단할 나이잖아. 이상한 이야기 하면 오히려 교수입지가 좁아지겠지. 그런데 교사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가르치니까, 조심해야지. 애들을 세뇌라도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이를 걱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성년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치교육은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부작용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성년자들에게는 마약과도 비슷한 "이념의 중독"에 감염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현장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대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5)



가만, 근데 외국에서는 16세인가 17세까지 선거권도 허용한다는데, 그럼 그쪽 나라 청소년들은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더 성숙했고, 이쪽은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생각하니까 열받네, 성인이 뭐야? 성인들이 과연 얼마나 성숙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성인문화'라고 했을 때 쉽게 떠오르는 것이 뭐야? 그렇게 고매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리고, 이념에 중독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북한 쳐들어온다고 말하는 '성인들'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판단'하는 교육을 하지도 않으면서, 판단을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말이되? 그저 입시에서 성공하게 단어 몇 개 쑤셔 넣기에 바쁘면서.

인지발달이론이고 뭐고, 구체적으로 증명된 거 있어? 16세랑 19세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아니, 백번 양보해서 설령 증명된다고 해도 말이야, 미성숙한 사람은 인간도 아니냐? 판단은 일단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해야지 좋은 것 나쁜 것을 이미 갈라놓고(자기도 사실 잘 모르면서!) 이리 저리 하라고, 사람이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건가? 이 나라 사람들은 웬만해선 보통교육체제에

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5) 이명현(2006 pp. 169~17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철학과현실』 2006년 여름호(통권 제69호), 철학문화연구원, 강조는 필자.

서, 그리고 학벌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래놓고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네가 선택한 것이다"란 말 따위 하진 않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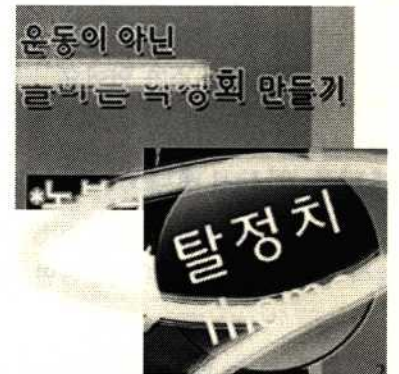
게다가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잖아! 당 가입까지 막을 정도로 제한을 해야 하는 건가?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이와 같이 교사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주제라고 해도 학생들과 함께 토의하고 고민해 갈 수 있는 교사의 교육 철학과 국가의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개념 속의 욕망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욕망들이 숨어있다니. 내 욕망도 마음껏 분출할 수 있어 후련하구먼. 나만 후련하면 이거 보는 사람들에겐 미안한데.

### 그럼 중립이란 비스무리한거 하나 더. 탈정치가 뭐니까?

탈정치, 정치를 벗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요새 여기저기에서 탈정치란 말이 떠돌던데... 맞아! 우리 학교 곳곳에 남자 둘이 양복 입은 사진 붙여놓고 탈정치라고 크게 써놨던데. 그 탈정치가 이 탈정치인 갑다. 거 꼭 11월만 되면 학교에서 양복입고 돌아다니던데, 이해할 수가 없어. 편하게 입고 돌아다니지 꼭 양복을 입더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으니 그렇겠지? 웃기는 거시여 그거시.



5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한 선본의 구호들

어쨌든 탈정치 좋지! 특히 학교에서 말이야. 꼭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들이 있어. 신기하게도 몇 년이 지나도 지치

지도 않고 이야기하더라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면학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지, 도서관에 있는 외부인들이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이런 거 생각은 안하고 꼭 본부랑 싸우려고만 하고, FTA니 평택이니 이런 이야기만 한다니깐!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학교는 탈정치하자! 장애든 여성주의든 기타 다양한 이야기는 '공부'나 '복지'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각자가 다원주의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뭐~ 굳이 의견을 모아서 할 게 있슈?

###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냈습니까?

내가 잘못 말했남! 그런 큰 이야기가 정치 아니에요?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 학교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모아 외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운동권들이 하는거, 그게 정치지. 뭐가 정집니까?

### 운동권이 뭐니까?

운동권이.....그 뭐냐. 아 알잖아요! 학교든 어디든 통일이나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제일 큰 신문들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 운동은 뭐니까?

사람 선동하는 거지 뭐. 아니면 정치적인 이야기 주장하는 거. 통일이니 노동이니, 뭐 기타 다양한 것들 다. 경제가 중요한 이시기에! 난 취업하고 싶다고. 왜 꼭 시끄럽게 집회하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방해를 하는지... 할거면 자기들끼리 조용히 하던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냈습니까?

좋아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모든 것을 알려주는 네X버에 물어보겠어!

**운동권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죠?**

답글 : + 7 (7명) 나도 물어보기 hoekwang21 조회 : 2916 답변 : 2

이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2-11-21 19:17 작성) 신고

각종언론매체에서 운동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어떤사람들을 운동권이라고 정의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운동하는(?)사람들...

no77 (2002-11-21 18:21 작성) | 1대1 질문하기

이의제기 | 신고

한희대나 그 밖의 다른 운동부에서 뭉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러구 하다면 들맞겠져...애구 들 맞리운달...??

운동권이란 말 그대로 학생운동같은 것을 하는 부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한총련'같은 집단인거져..

이들은 대개가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자의 권리', '독재정권 타파'등으로 주로 기본권 세력에 대한 저항을 하는 부류들입니다..

그 옛날 박정희와 80년대, 민주화항쟁에서는 이러한 운동권이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으나 현재부터인가 그들의 설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요..

4 109

#### 답변들

#### 운동권..

no03027 (2002-11-21 18:26 작성) | 1대1 질문하기

이의제기 | 신고

운 : 동-권 (運動團) [-전] 노동 운동 인권 운동 학생 운동 등과 같은 변혁을 위한 투쟁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일컫. 1 ~ 학생 / ~ 출신의 재야 인사.

박요. 맞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운동은 운동입니까. 사실 말이야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활동하는 방식 좀 보세요.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생각들 주장해야하는 시기냐고요. 서로 간에 릴렉스~ 하고. 조용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요즘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탈정치의 중요한 맥락이기도 하지요. 학교에서도, 본부를 적대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으로 바라봐야지요. 본부가 등록금을 대체 어디다 쓰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내년엔 신입생 등록금이 20% 오를 수도 있다지만<sup>6)</sup>,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목소리 높일게 있겠어요. 안 그래요? 좀 조용히 삽시다. 이제 이야기하면 서로 들어주는 그런 좋은, 합리적인 세상이라니까.

### 정치가 뭐니까?

정치! 그걸 몰라요? 최소한 자원, 혹은 한 사회의 가치의 권위적 배분 아닙니까?<sup>7)</sup> 교과서에도 있는 개념이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사회와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정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우리가 생산해낸, 혹은 발견해낸 모든 중요한 가치들, 자원들을 분배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잖아요?

6) 노컷뉴스 2006년 11월 15일자 기사. "서울대, 내년 신입생 등록금 20% 인상 검토"  
7) 서울대학교 정치학교 교수 공저(2002, 8p),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정치는 일상적인가요?

그렇게 따지니 우리 삶이 다 정치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건가?

이것 한번 읽어볼래요?

...정치의 적대성을 부인하고 갈등의 완화를 추구하는 합리주의적 탈정치관의 지배는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왜냐하면 이들 탈정치적 관점은 이러한 적대적 힘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시킬 통로를 제시하기 보다는 합의주의적 외관 하에 회피하고 억눌러 결과적으로는 의도와 정반대로 다양한 근본주의적 정체성의 정치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무폐는 현재 서구에서 예외라기보다는 보편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익 포퓰리즘의 만연을 그 대표적 징후로 그는 예로 들고 있다...8)

그러면 탈정치라는 말이 해결되어야 할 갈등들을 숨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삶에나 좀 신경 써보자는 이야기인데. 학생회도, 의견을 모아서 그런데다 표출하기보다는 있는 돈 잘 아껴서 복지에 신경쓰자는 이야기에요. 난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이 없는 거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강물에 받을 담고 있지만, 언제나 강물은 흐릅니다.

입장이 없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장에 이익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훨씬 낫네. 나도 알아요. 뭐, 그런데 어쩌겠어. 내 개인으로서는 정말 입장이 없는 데, 고민하기도 싫고... 나 살기도 바쁜데.

그 태도가 결국 누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8) 안병진(2006, 98p). "탈정치론의 시대 : 참여정부와 뉴라이트의 탈정치론과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 2006년 여름호(통권 67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자꾸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라구요. 내 입장은 보수적이라고 보이든 말든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안주면서 나부터 잘하는거. 이제 좀 낫죠? 그래도 운동권들보다는 낫지. 남한테 피해주는 것 보다는...

'남'은 누구입니까?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 아니겠어?

당신은 운동권입니까?

나? 내가 왜? 뭐 옛날에 선배 따라서 선거 몇 번 하고 집회나간 적은 있지만, 뭐 정치조직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랑 뭐 하자고 선동한 적도 별로 없고. 에이, 운동권은 아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아 뭐 운동이란게 다 그렇죠. 좌파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 잠재적으로라도 운동권일 수 있겠지. 맑스 혹은 통일 이야기 하거나.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냈습니까?

모르겠슈! 개념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튼 당신 참 어려운 사람이구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다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건가? 생각 속에 수많은 욕망들이 들끓고 있는데, 완전하게 그것이 이성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의식이고, 감정이 라고 하지 않소. 그냥 싫은 것이 합리화되었을 수도 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개념인데 이용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아무튼 뭐 그런 모든 개념들을 다 파악하려들면 피곤해.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이제 좀 혼란스럽구먼. 그만합시다. 응? 다음에 또 볼 수 있음 보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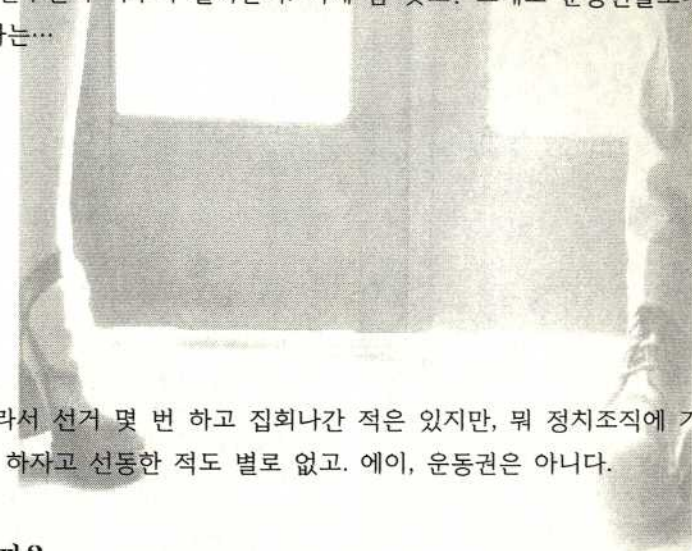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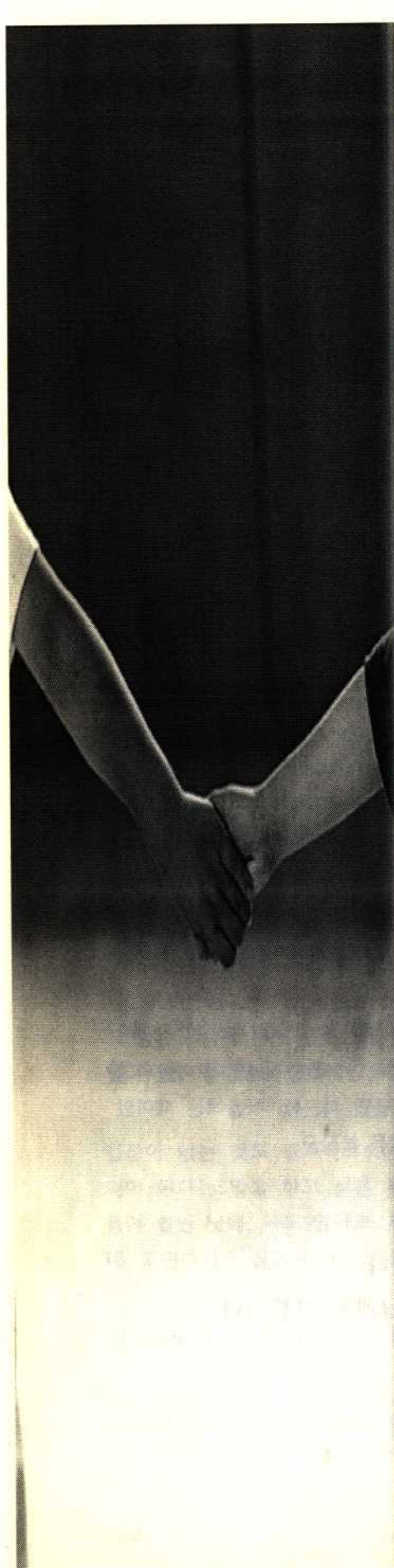
개념은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욕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욕망이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존재를 배반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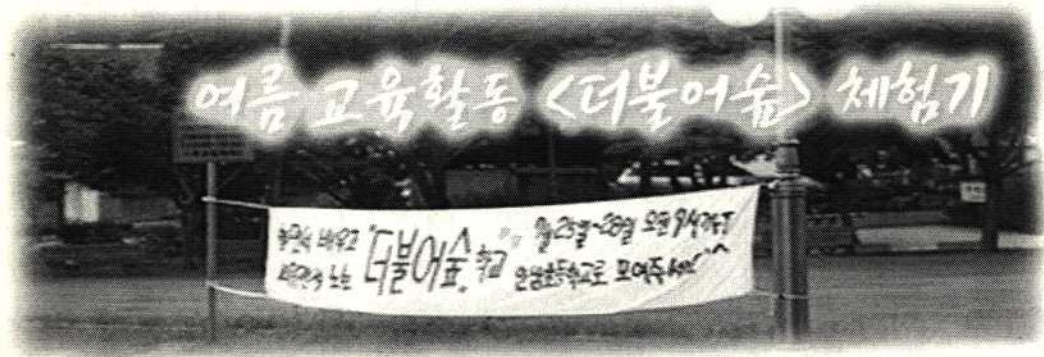




# 여름 교육활동

교활을 처음 만난 건, 2006년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교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컴티를 찾아보고, 이런 저런 자료들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농활, 환활 등 기존의 연장활동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교육에 대해 고민한다면, 교육연장활동을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교활과의 만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일찍 준비를 시작하지 못해서 이번 해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옥천에 1박 2일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내년 여름엔 1박 2일의 제명이 아니라, 정식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여름교육활동 <더불어숲>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2006년 7월 25일

[16시 10분]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역에 들어선다. 어랏!! 분명히 150개 정도 좌석이 남아있었는데... 기차 출발시간 15분 전에 도착했더니 좌석은 없고 입석만 "탈래말래"하며 기다리고 있다. 2시간을 기다려서 다음 기차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2시간 20분 입석으로 가느냐.. 고민 중인데 어느새 내 앞 사람들은 전부 표를 사서 떠나고 뒤에는 <압박>이라고 얼굴에 써놓은 외국인이 날 찌려보고 있다. ㅜㅜ "옥천 입석 하나요" 2시간 20분... 2시간 20분.. 덜덜덜 [16시 30분] 아니 이게 웬 행운! 식당칸이 있다. 가장 싼 메뉴인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시켰다. 아, 이 커피... 정말 맛이 없다. 하지만 한번 빨아들일 때 혀끝을 적시는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음미하는 것처럼, 아껴 먹는다. 2시간 20분은 길다. 하지만 이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것도 고문인데 그냥 서서 갈까 -\_-

[19시 30분]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노는 더불어숲 학교"라고 써 있는 펼침막 앞에 서있다. 비가 오고,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농촌 풍경은 쓸쓸하기만 하다.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논들을 바라보니 현장활동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아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하며 교활대장 형구씨가 말을 걸어온다. <더불어숲>이라고 써있는, 꽤나 예쁜 티셔츠를 입고 있다. "지금 숙소에서는 교사들이 잠시 쉬고 있고요, 역사학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 그럼 역사학교 수업 보러 갈게요"

[19시 47분] 간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면사무소 2층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순간, 대략 20여개의 시선이 한번에 쫓긴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새로운 교사가" 하는 시선으로, 교활참가자들은 "어랏, 저건 누구지" 하는 시선으로. 부담스럽다 -\_-;;; 다행히도 주교사가 다시 수업을 진행한다. [20시 6분] "여러분이 그럼 국사 교과서랑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이랑 어디가 다른



지 직접 찾아보세요" 이거, 상당히 짝센 내용이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로 5.18 수업을 진행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 '역사교과서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주제 전달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교대생들이 주축인 행사이니 활동 중심의 수업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약간은 지루한 느낌. [20시 30분] 수업이 끝났다. 슬쩍 교사들에게 다가가 "아 저는 참가자는 아니고, 취재하러 왔는데요. 관악 사범대 어찌고~" 소개를 한다. 어떤 분이 "관악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라고 묻는다. ㅎㅎ;; "수업 잘 했어" "아, 정말 애들 너무 지루해해서 힘들었어" 등등의 얘기를 나누는데, 꽤나 친밀해 보인다. "모두 같은 학교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어디, 애는 어디.." 오호 +\_+ 사범대도 꽤 있네. 다양한 학교 구성이다.

[21시 10분] 어지럽다. @\_@ 난 현장활동 하면 많아봐야 스무 명? 적을 때는 열 명 정도가 한 숙소에서 지낸 경험밖에 없는데.. 여긴 30여명이 숙소 2층에서 우글대고 있다. 아이고 @\_@ 난 분명히 20명만 넘게 있어도 부대끼고 불편하고 이랬는데, 정말 하나같이 밝은 얼굴이다. 꼭 웃고 있지만은 않더라도 뭔가 피곤에 절어있다거나, 심각해보인다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 아, 딱 한 명! 명상(?)하고 계시는 교활 대장님만 +\_+



[21시 34분] 철원 마현초등학교 교사인 최고봉씨가 교활 참가자들 앞에 섰다. 심상찮은 포스다. "의자 20개만 준비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뭔가 거침이 없다. 이 좁은 공간에 의자 20개라니;; 대략 나는 난감해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척척 잘 움직인다. 그리고 20명의 자원을 받는다. 또 척척이다. 시간이 10시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확인한 일과표에 의하면 지금 상당히 피곤해야 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발랄(?)할 수 있는 지.. 약간은 놀랍다. [22시 4분] 놀라움은 갈수록 커진다.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미술치료" 강연인데,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심리상태를 예측하는, 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연사가 계속 그림을 그려줄 것을 주문하는데, 귀찮아 하기는 커녕 교사들 분위기가 너무 밝다. "제 꺼는 왜 안 가져가요" 정말 서운해서가 아니라 농담이겠지만(아니면, 초등학교로 교생을 가다 보니 몸에 배어서겠지만)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정말 놀라운 발랄함, 놀라운 집중력이다. 조는 사람은 없고 약간 피곤해 보이는 사람도 그림을 척척 그리고, 발화에 대한 반응도 딱딱 잘 해준다. 이걸, 너무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다.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지만, 이 활력만으로도 꽤나 괜찮은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

[23시] 조별 평가 시간이다. 와.. 조별 평가, 이거 정말 짝세다. "아까 거기서 누구는 좀 싫어하지 않았어요?" "개가 좀 막 몸 많이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반응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좀 신경써야겠네, 비도 오고" .....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나 하나를 돌아하고, 그 당시 학생들의 반응을 생각하고, 문제점을 캐치하고, 다음 수업을 위한 대비를 한다. 누군가는 옆어



져 있고, 누군가는 앉아 있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등 다양한 자세지만 아무도 평가를 "귀찮아하지는" 않는다. 두 시간을 해도 20분 넘어가면 탄 짓과 탄 생각의 향연으로 덮여지곤 했던, 몇 명은 버닝하고 몇 명은 시큰둥했던, 내가 경험했던 현장활동 평가와는 좀 다르다. 조금씩 피곤해하는 교사들은 옆에서 힘내라고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꽤 긴 시간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학생 사회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사를 찾기로 쉬운 일이 아니다. 교활과 마주한 첫 날, 이렇게 나는 교사들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2006년 7월 26일

[1시 6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잘 알지 못하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계속 듣는 것도 힘든 일인지라, 전교조에서 교활 담당자(예비교사지원국장)이기도 한 최고봉씨와 얘기도 할 겸, 1층 남자 숙소로 내려왔다. 주방장(농/환활로 치면 생활반장)을 담당하고 있는 준길씨, 교활대장 형규씨까지 네 명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교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서울교대에서는, 서울대에서는 어떤 담론들이 오가는지, 그런 얘기들. 나도 느끼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아도, 갈수록 대학사회에서 교육 현실에 관한 담론들은 죽어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뭔가 좀 걱정스런(?) 말들이 오간다. "에이, 그래도 이런 활동들도 생겨나고, 괜찮아지겠조"라며 다시 물(^.^;)을 한 잔씩 들이킨다.

[2시 40분] 시간도 늦었고, 슬슬 자야 내일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야 교사들이 숙소로 내려온다는 사실! 뭐야 대체 @\_@ 아직까지 평가를? 쪼르르 달려가 "뭐하느라 지금까지 계신거예요?" 했더니 "내일 수업 준비하느라요. 그래도 저희는 일찍 내려온 편이에요"란다. 헐;; [2시 43분] 2층에는 여전히 2개 조가 남아서 다음 수업에 쓸 교구를 만들고 있다. "이걸 미리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전날 만드시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모르니까, 대충 기획을 하고 재료는 사오는데 만드는 건 와서 해요" 이럴 수가! 이제 곧 3시다. 다시 한 번, 교활과 마주한 첫 날, 나는 교사들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이렇게나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6시 20분] 싸늘한 기운이 몸을 감싼다. 눈을 뜬다, 아니 뜨려고 애쓴다. "오늘도 비 많이 오네" "밖에서 활동 못하겠다야" 등등의 소리가 들려오고, 부엌에는 불이 켜져있고.. 아! 뭔가 현장활동스럽다. [7시 10분] 아니 이걸! 백만 년만에 "식판"을 만났다. 고등학교 시절 10분도 안 걸려서 밥을 마시던, 그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식판! 밥/반찬/국 등이 마련돼 있고, 어떤 건 배식을 해주고, 어떤 건 자율 배식이다. 그냥 먼저 올라오는 교사들이 먼저 식사를 한다. 아웅, 뭔가 뽀뽀하지만 그래도 몇 명의 교사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어느 현장활동에서나 마찬가지로, 아침밥을 먹으

면서 그리 활발한 대화가 오가지는 않는다. .... (한참의 침묵) "맛있네" .. (또 침묵) .. "오늘은 뭐 하세요?" "아, 수업 취재하고.. 뭐 그렇죠" ... [7시 25분] 설거지는 각자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어딜 가나 편법이 있듯이 여기서도 "물아주기"가 있다. 하핫;; 참가비도 안 내고 구경하러 온 주제에 운은 좋아서 설거지는 면했다. 나오다가 이제야 밥을 먹으러 오는 여성 참가자를 만났다. 슬쩍 옆에 있는 교사에게 물어보니 여자 숙소는 마을 회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 와, 마을에서 건물을 두 개나 빌려주시네 +\_+

[9시 10분] 설렌다.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참관이다. 그런데... 역시...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완전 시끄럽다. ㅈㅈ 대략 50여명의 초등학생/유아들이 소강당에서 거의 '날뛰고' 있다. 정말 나는, 이런 시츄에이션에 처하면 난감해진다. 다행인 건, 내가 교활티를 입고 있지도, 명찰을 달고 있지도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나에게 안기지는 않는다는 것. 한 교사에 거의 서너명의 아이들이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뛰어다니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다. 아, 이게 초등학교구로...



[9시 30분] 오늘의 첫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 "케로로 댄스 감습"이다. 교대생들은 정말 어메이징하다. 별 걸 다 할 줄 안다. 난 안 따라 해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다. 노래가 나오고 교사들이 춤을 추자, 그저 좋아서 따라 하기도 하고, 뭔가 똥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참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아예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물론 있고. 학생 : 교사 비가 거의 2:1인데, 이게 단순히 한 명당 두 명의 학생들을 커버하며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조로 따지자면 교사가 6명이나 7명이 있으면 학생은 15명 정도가 있는 것! 그리고 정말 15명의 '초등'학생들은 교사가 딱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는 한 결코 얌전히 있어주지 않는다. 그나마 이 노래 정말 흥겹네 >.< 마음 생각도 나고 해서 몸이 근질근질하지만, 내가 따라 하기에는 너무 귀여운(?) 동작들뿐이다. 참자.

[10시 10분] 조별로 흩어져 본 수업이 진행된다. 유아/1,2학년/3,4학년/5,6학년의 네 조가 있다. 하나씩 차근차근 둘러보기로 하고 먼저 유아반으로 왔다. 오늘 오전은 전통+체육마당이다. 그러니깐, 유치원을 보러 온 기분이다(사실 유치원 맞다). 화장실을 가도 교사가 같이 가고, 딱히 수업의 목표가 이렇다 이런 거 왜 한다는 설명은 없다. 그냥 학생들과 함께 콩주머니 던져서 바구니에 넣기 놀이를 한다. 교안을 뒤져보니 원래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의식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자, 이제 연희도 해볼까?" "아~ 들어갔네~ 이제 뒤에 가서 해보자" 이런 식이다. 교사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직접 활동을 잘 해볼 수 있도록 딱 붙어서 지도한다. 수업 진행 교사

가 있기는 하지만 무슨 활동을 할 지 얘기하고, 그냥 시간을 재는 정도의 일을 할 뿐,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붙어서 함께한다. 그리고 잠시 난장판이 지나가고, 옛날 얘기를 해주고, 학생들은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소꿉놀이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 다녀오고 @\_@ 교사들은 학생들 앞에서 절대로 피곤한 티를 내거나, 짜한 얼굴을 하지 않는다. 이걸, 말 그대로 보살핌 노동. 그걸 곳곳이 웃는 얼굴로 해내는 교사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야 윈, 취재 와서 내내 교사들에 대한 감탄만 ^^;

[10시 40분] 1,2학년 수업을 보러 왔는데... 별로 흥미가 생기질 않는다. 활동 자체가 재미없다기 보다는, 유아반 수업이랑 거의 비슷해서라고나 할까. 쇼 프로그램에서 명절이 되면 하곤 하는 윷놀이 게임을 하고 있다. 하긴, 그래도 이걸 엄청난 진보다. 최소한 '규칙'이 있는 게임들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런 차이들도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 같다. 자료집을 뒤적여보니 학년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팁들이 모여져 있다. 와우 +\_+

[11시] 조금 기대했다. 3,4학년 수업은 뭔가 많이 다르겠지, 하는. 그런데:: 좀 난감해진 게,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교실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다. 한 명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가 '강강수월래~'라는 후렴을 하면서 그냥 돈다. 그 포스 때문에 교실 문 열고 들어가기도 뻔뻔하고, 창문에서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다. 설마 이것만 계속 하지는 않겠지, 하고 자료집을 뒤적여 교안을 보니 강강수월래 뒤엔 비석치기랑 윷놀이도 있다. 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여 ㅎㅎ (강강수월래는 안했지만)



[11시 20분] 마지막 5,6학년 수업이다. 여기는 다른 세상이다. 아까 케로댄스할 때도 느꼈지만 고학년들은 자기들끼리 참 잘 논다.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말쑥피우는 학생들이 몇 있어서 교사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좀 꺼려하고, 남학생들은 그걸 놀린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교사들은 여학생을 복돋고, 이런 상황이 몇 분 반복됐다. 급기야 터지는 "야, 재 좀 통제해"라는 말까지. 물론, 잡으라거나 때리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내내 교사에 의해 '보살핌받는' 학생들만 보다가 처음으로 '교사의 지침을 벗어난 학생들'을 만나니, 뭔가 흥미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거기까지. 다시 줄은 돌아가고, 피로가 몰려온다. 응? =\_= 내가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3시간 수업은 너무 가혹하다.

[11시 30분] 이 교사는, 왜 농촌 학교를 지망한 걸까, 아니면 혹시 밀려서 왔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다. 교무실에서 뭔가를 읽고 있던 교사에게 인터뷰를 부탁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 작년에 처음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죠" .... 등등 겨우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농촌 현실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뭔가 되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친절하 교사라.. 항상 친절하 교사들을 보면 드는 의문, 저런 사람들이 체벌을 하는 걸까.

[12시] 숙소에 와보니 '주방장' 중심으로 부엌이 시끌벅적하다. 점심식사는 짜장이라던데 전을 부치고

있다. "이건 반찬이에요?" "아니요, 그냥 부치는 거예요" 응? -\_-? 뭐지;; 암튼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앉아서 전을 입에 넣는다. (응?) [12시 12분] 전을 부치던 손길이 잦아들고 대략 "식조 모드"로 돌입했다. 나도 얼떨결에 식조와 함께한다. 마을 분이 트럭을 몰고 오셔서 밥 / 식판 / 식기 등을 싣는다. 비가 와서 이런 것들을 덮느라 또 난리다. 근데 짜장은? [12시 15분] 짜장은 마을 식당에서 제공해주신다. 와우! 얘기를 들어보니 마을의 지원이 장난 아니다. 쌀이나 김치 등은 물론 생필품까지도 주신다고.. 그리고 오늘 점심은 한 식당에서 짜장과 김치와 단무지를 제공한다. 현장활동에 가면 항상 "주시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규율을 지키느라 난감했던 경험이 많은데, 조금은 어색하다. 그나저나 트럭 오랜만에 타보네 ㅋ [12시 50분] 한 조 한 조 밥을 먹으러 오고, 교사들은 학생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 밥 흘리는 것도, 반찬 집어먹는 것도 챙겨주고, 그래도 밥을 다 먹고 나서 식기반납은 학생들이 알아서 한다. 정작 식조 일을 하는 우리는 밥을 먹지 못했다. 밥이 모자라서 ㅜㅜ 아웅 배고프다. 줄을 잘못 섰나.. ㄷㄷ [13시 20분] 설거지를 한다. 와, 그런데 학교 급식소에서 배식도 하고 설거지까지 할 수 있다니 ^^ 안남면에서 교활에 대한 지원이 빠방한 것 같다. 항상 구경만 하던 급식소의 그 큰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한다. "아 교대생이시면 누구누구 아세요?" "어? 어떻게 아세요?" 뭐 이렇게 별 친하지 않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말을 걸고 ^^;; 교사들은 밥도 못 먹었는데 그냥 서로 짜증내거나 피곤해하는 기색 없이 "열심히" 설거지를 한다. 이거, 내 눈에 너무 교사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가 -\_-;

[14시 20분] 숙소에서 식조끼리 늦은 점심을 먹고, 아까 식조 일을 도와주신 마을 분 인터뷰도 하고, 지금은 오후 수업을 보러 왔다. 오후수업은 미술마당이다. 유아반에서는 모래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다.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아까는 전통+체육마당이라 좀 활동적이었지만, 미술마당이다 보니 앉아서 한다는 것 정도? 교사들은 역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활동을 유도한다. "이건 뭐 그런 거야?" "강아지" "아유~ 이쁘다" 오전 수업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14시 30분] 오늘 새벽 3시까지 교사들이 만들던, 바로 그 부채로 5, 6학년들이 꾸미기 활동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미술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아까 그렇게 활발하더니, 지금 학생들은 상당히 얌전히(?) 꾸미기에 집중하고 있다.



[14시 40분] 서울에서 호출이 왔다. 올라가야 할 일이 생겼다. ㅠ ㅠ 오늘 저녁까지는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15시] 숙소에서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나온다. 다시 한 번,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노는 더불어숲 학교”라는 펼침막 앞에 섰다. 비가 내리고 있는 농촌은 적막하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이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더불어 숲이라, 멋진 말이다. 내년엔 이번처럼 맛보기가 아니라 나도 숲이 되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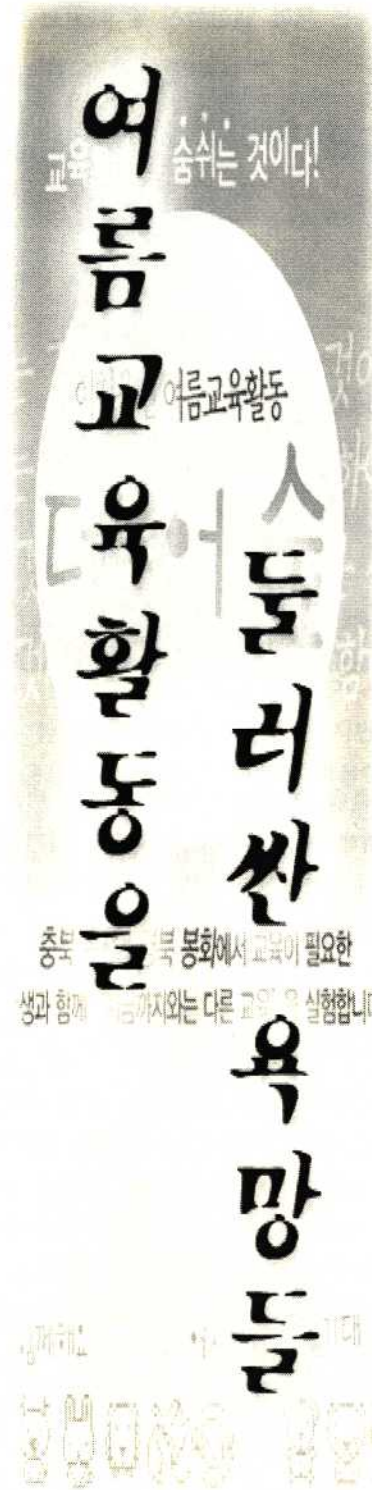
석영 | [realmb12@hanmail.net](mailto:realmb12@hanmail.net)

### <서울대 교육저널>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현재 본지의 정식명칭은 <서울대 교육저널>입니다. 하지만 본지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표현 이외에 딱 감이 오면서도 뭔가 새롭고 상징적인, 한 마디로 멋진 이름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요+\_+

편집위원회 내부에서 몇 가지 이름이 나왔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이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육저널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 이름이 생기면 공식명칭은 <서울대 교육저널 XXX> 이 될 것 같습니다. 컴티([http://club.cyworld.com/snuedu\\_jrn](http://club.cyworld.com/snuedu_jrn))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ㅋ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도토리(?)를 드립니다. >\_<



여름교육활동 <더불어숲>은 2005년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와 서울교대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시작한 사업이다. 2005년 처음 기획이 되던 당시의 목표는 ①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통해 교육의 대안적 방법과 원리를 창출한다 ② 예비교사로서 교실교육을 넘어 구체적인 삶의 원리로서의 교육을 고민하고, 대안적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③ 교대에 교육내용, 방법, 가치를 고민하는 모임의 기초를 닦는다, 이렇게 세 가지였다. 하지만 1박 2일의 취재만으로도 '이게 곧 <더불어숲>의 목표다'라고 하기에는 실제 교육활동을 둘러싼 너무나도 다른 욕망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교활의 각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그 욕망들을 훑어보겠다.(일정상 학생은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ㅠ)

“어려운 농촌 현실에 희망의 싹이 될 수가 있다”

2006년 7월 25일, 교활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강연을 막 마친 철원 마현초등학교 교사 최고봉씨를 마을회관에서 만날 수 있었다. 최고봉씨는 “지금 농촌은 매우 어렵다”는 말로 교육활동에 대한 쉼을 풀이 시작했다. “농촌이 어렵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학교는 통폐합되고, 보건소도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교육과 보건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조차 보장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그를 작년 <더불어숲> 활동이 시작될 때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이끌었다. “지금은 안남면과의 개별적 연대 수준이지만, 교활이 정착되면 더 많은 가능성들이 생길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이런 고민들을 꼭 이어나가야 한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예비교사지원국장을 맡고 있는 이답게 예비교사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예비교사로서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최고봉씨와 마찬가지로 2년 째 <더불어숲>과 함께하고 있고, 올해는 교활 대장까지 맡고 있는 참가자가 있다. 바로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이기도 한 강형규 씨. 그는 교활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하나로 딱 집어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대답했다. “농촌의 아이들은 도시의 아이들과 다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교사로서 여러 고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잠시 고민을 한 뒤에는 “사실 많은 세부 목표들이 있지만 참여한 교사들이 예비교사로서 여러 고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말을 맺었다. 형규씨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교사도 “학교에서 나가는 실습과는 다르게 수업 내용도 직접 만들고, 또 도시 아이들이 아닌 농촌 아이들을 만나게 되니 훨씬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이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답해 비슷한 생각임을 보여주었다.



**"농촌 아이들에게 꿈이 필요하다"**

<더불어숲>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활대와 함께 하나의 커다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단위가 바로 자모회, 학부모운영위원회 등 “마을 분들”이다. 점심 배식을 위해 숙소로부터 학교까지 식기를 나르는 데 도움을 주신 마을 분에게 교활에 대한 반응을 물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라는 대답이 제일 먼저 나왔다. “학부모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교사 분들을 돕는데, 그게 다 아이들이 좋아해서이다.”라며 말을 잇는데, 그의 표정이 씩 좋지만은 않다. “사실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말은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정말 어렵다. 그래도 안남면은 사정이 좋은 편이라 학생들이 꽤 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비전이 없다는 것. “아이들이 꿈이 없다. 농촌이니 본보기로 삼을만한 사람들도 전부 농민이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시야가 좁으니까... 또 애들이 노력하는 습관도 없고..”라며 말을 흐린다. “그래도 작년부터 이게 시작되고 서울에서 대학생 선생님들이 오고 하니깐 애들이 자극을 조금씩 받는 것 같다. 이것저것 물어본다”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분도 “대학생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면사무소나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선생님들이 말해준 걸 검색해보기도 한다.”라며 맞장구를 친다. 마을 분들뿐만이 아니라 교활이 진행되는 장소를 제공하는 안남초등학교의 교사로부터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기는 학원도 거의 없고, 학생들이 그냥 집에서 노는 것 말고는 방학 때 할 일이 없다. 작년에 반응이 아주 좋았다.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있고, 도시에서 온 사람들 만나니깐, 학생들 시야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번엔 흔쾌히 장소를 빌려줄 수 있었다”



**더불어 숲이 되자**

이렇게 <더불어숲>에 닿아있는 이들은 모두가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않다. 누군가는 예비교사로서의 고민을, 누군가는 농촌의 현실을, 누군가는 내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이 있다. 바로 ‘더불어 숲이 되자’는 생각이다. 각각의 나무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불어서 숲이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 “비록 한 달 전쯤에야 처음 만났지만 함께 하는 교사들이 정말 많은 힘이 된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마을 분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아무리 피곤해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들은 벌써 더불어 숲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숲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여름교육활동 <더불어숲> 관련 커뮤니티

2005년 : <http://summeredu.cyworld.com>(교사킵티)

2006년 : <http://club.cyworld.com/edusoop>(교사킵티), <http://club.cyworld.com/2006green>(사진창고)

서명 | [realmb12@hanmail.net](mailto:realmb12@hanmail.net)

**16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열린교실**

<열린교실>은 방학 중에 관악 동쪽지역의 중학생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간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12월 중순 경,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며, 1월 말에 일주일 정도 본 활동이 진행됩니다. 사범대 학생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http://openclass.cyworld.com>

# 〈더불어 숲〉 체험 수기

나는 학기 초부터 '더불어 숲'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관심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꼭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싶은 새내기인 나에게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을 한다는 '더불어 숲'의 문구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여름방학 시작되고 교활 참가자들은 한 달 전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했다. 처음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었지만 내가 직접 수업을 기획한다는 것이 나는 뿌듯했다. 드디어 교활이 시작되는 날. 나를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나는 내심 불안했다. '1학년이라 실습도 한 번 해 본 적 없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외면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런 나의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엔 내 예상대로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수업에 잘 참여해 준 것이다. 물론, 아이들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준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최대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나와 우리 교활 참가자들은 그 기간에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주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불어 숲'에서 배운 것만큼 나도 '더불어 숲'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일단,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교활의 한계와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 교활은 기껏해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기간에 아이들 하나하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크게 변화하기를 바라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많은 한계를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역으로 다시 희망을 보여준다. 일단,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중에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느꼈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

또 나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는 길은 인격 수양을 하는 길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표현력이 부족하고 조금 소극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나는 교활 기간에 아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완벽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단점은 교활을

하면서 전부 드러났고, 아이들도 쉽게 알아채었다. 이것은 결코 교육자의 평소 삶과 교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에 친구들에게 욕을 많이 사용하는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도 욕을 많이 하며, 평소에 자신의 삶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소외된 아이들을 잘 챙겨주지 못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교육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평소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옳다는 신념을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올바른 신념과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아이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교육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활을 다녀와서 나의 인간의 본원적 순수성(선함)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었다. 아이가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떠들거나 돌아다닐 때 교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아이에게 벌을 주거나 협박을 해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어찌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는 가정에 기초한 대처법으로, 힘과 같은 외부적인 통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나는 이번 교활 동안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본성(인간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무엇이 잘못인지 이해시키고 설명을 함으로써 아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나의 이러한 방법은 처음엔 효과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요즘 아이들이 무섭다고 하지만, 나는 실제로 순수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나의 방식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나는 여기서 어느 정도 희망의 가능성을 찾았다.



나는 우리가 '더불어 숲'의 모토인 교육의 희망을 완벽히 찾아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활동에 뛰어 들어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면, 언젠가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번 더불어 숲은 이번에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김수현 | 서울교대

기교 - 공부방 수기

# 아이들의 마음 알아주세요

혜검 1학년 공부방 교사

"선생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참관 때문에 한 주 빠진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며 난리다. 이럴 때면 새삼 내 존재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낀다. 열댓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 정신이 쏙 빠지기도 하지만 저절로 웃음이 나고 힘이 난다.

내가 다니는 공부방은 봉천본동에 있는 '열린 공부방'이다. 두산임대아파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이다. 나는 올해 6월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신입교사에 속한다. 한 때 바빠서 제대로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고 공부방 행사에도 많이 못나갔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요즘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공부방에 신경쓰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아이들을 내 몸에 매달고 수업하는 방에 들어오면 딱지치기에 정신이 없던 아이들이 나를 본다.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려다 '선생님 딱 한 판만요~~ㅠ' 하는 아이들의 애원에 못 이기는 척 허락해주고, 수업을 위한 정리를 한다. 어린 나이에 남아도는게 힘뿐인지라 공부방에 온지 두 시간 정도 밖에 안됐을 텐데 방 안은 이미 난장판이다.

"으앙~~~~!!"

"왜 울어?? 누가 때렸어??"

"X가 때렸어요...ㅠㅠㅠ"

수업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누군가가 운다. 서로 치고 박고 하다가 자기 분에 못이겨서 우는 모양이다. 특히 1학년들은 자신의 감정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금세 싸우고 울고 그런다. 우는 것 자체는 상관없지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그대로 두면 싸움으로 번져서 누군가가 다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1-2학년은 다른 학년 보다도 두 명 정도의 교사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혼자서 수업을 한다. 게다가 아직 공부방을 한지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보지도 못한다. 그래서인지 내 수업 시간에는 유난히 많은 아이들이 울고 싸움도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일을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 아이들 울음을 그치게 하는 데에는



도가 텃다는 것이다.(별로 자랑인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처음 공부방에 들어왔을 때에는 아이들의 우는 모습에 너무 당황했었고 가끔은 손이 먼저 올라가는 나를 보기도 하였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 자신이 겪어온 교육을 버리지 못해서인지 자꾸 화만 내고 때리려고 하고 그랬었다. 그런 내 모습이 참 한심하기도 했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자 자연스럽게 화내지 않고 달래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가 왜 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을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을 때 그 아이 역시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울음을 그친다. 아이들은 모두가 다른 존재이고 때문에 자신의 감정 역시 다르게 겪고, 우리 역시 다른 방식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때문에 아이들 모두를 잘 보고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사소한 부분을 위해서도 학생들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진심어린 아이에 대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참 교육이라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한다. 아이 달래주는 것 가지고 거창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강한 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정을 쏟았을 때 아이들은 우리를 좋아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다.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문제집을 풀게 한다. 수업은 두 시간 동안 하는데 한 시간은 수학 문제집을 풀고, 나머지 한 시간은 교사가 준비한 수업을 한다. 아이들이 문제집 풀 때마다 문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가관이다. 열심히 자기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베끼려고 내 눈치 보랴 다른 아이 문제집 보랴 정신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안 풀겠다고 버티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ㅋㅋ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다른데 학교에서 어떻게 한 가지 방식으로 학생

들을 가르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보면 학교의 획일적인 교육이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아이들이 다 달라 보이는 때가 이 때 뿐이겠는가. 문제집 푸는 것을 보면 모르는 문제도 다 다르고 푸는 방법들도 다 다르다.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가르칠 때에도 아이들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아직까지는 자신의 방식이 아닌 것에는 익숙하지 않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의 시각에 맞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려다가도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문제도 보지 않고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ㅠㅠ 심지어 나한테 문제를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ㅋㅋ 사실, 아이들이 적다면 애교로 봐주는 셈치고 들어주겠지만.. 교사는 나 혼자고 아이들은 열 명이 넘지 않는가!! 게다가 모든 아이들이 질투의 화신인지라 한 아이에게 열심히 가르쳐주면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도 모른다고 그런다.ㅠㅠ 열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부터요! 저부터요!'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 몸이 열 개로 쪼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든다.

문제집을 풀다가 나오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다. 오늘 수학 문제집 내용이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추는 것이었는데 한 아이가 시계를 볼 줄 모르는 것이었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을 하다보면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할 정도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왜 11-7이 4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계를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느낀 나는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다. 나름대로 방에 붙어있는 시계를 떼어다가 가르쳐주기도 했지만 그 아이는 나의 설명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은 시계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어놓았고, 그 아이에게 시계도 못보냐고 하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수업진행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가지 대안을 아이들에게 제시했다.



"그럼! 너네가 애 좀 가르쳐줘라~ 너네 시계 잘 보잖아~"

"네? 우리가요?? 그건 선생님이 해야죠~"

아이들도 많이 당황한 모양이다. 왜 우리가 가르쳐주냐며 어리둥절해 한다. "내 말보다는 너네 말을 더 잘 알아듣지 않겠니?" 하며 울상을 한 번 지어줬더니 아이들은 내가 들고 있던 시계를 가지고 가서는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ㅋㅋ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아이도 있고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가르치려는 아이들도 있고 ㅋㅋ 게다가 한 사람의 설명이 끝난 후에 자기의 설명을 하는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었다. 급기야 가르치던 아이들끼리 자기 설명이 더 좋은 거라면서 싸우기도 했다. 물론, 그 정신없는 상황을 정리하느라 애를 먹긴 했지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친구를 가르쳐주려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 같아 너무 예뻐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몇 아이들이 그 동안 자기 수학문제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서 진짜 신기하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을 안 것 같아 뿌듯했다.

결국 그 아이의 시계 보기는 혼란 속에서 끝을 내고 본격적으로 종이접기 수업을 시작했다. 만들 것은 '상자'였다. 이번에는 다행히 모든 아이들이 좋아한다. 사실,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접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항상 힘들었다. 전에 아무 생각 없이 '토끼'를 접자고 했다가 남자 아이들이 거의 반란(?)을 일으켜서 수업을 완전 수정했던 적도 있다. 오늘 만들 상자는 색종이 뿐 아니라 신문지 등으로 접어도 되고 나름 실용성도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아이들이 수업 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수업을 했다. 아이들에게 접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종이를 나눠준 다음 스스로 접게 했다. 여기서 내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하나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는 점이



다. 답답하지 않나.. 스스로 하게끔 한다는 것을 핑계로 사실 방임해두고 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등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아무리 서툴더라도 최대한 스스로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의 성과물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공부방에 왔을 때에는 아이들의 잘된 완성품을 보고 싶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 것을 해주기도 하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말로 설명해주거나 내 종이를 접어서 보여주는 등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두는 편이다.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가끔은 읽어달라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혼자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나름 뿌듯하다.ㅋㅋ

"뽕!" "으악!"

휴- 오늘 수업은 편하게 넘어가나 했더니 수업이 끝날 때 쯤 난리가 났다. 색종이를 다 쓰면 남게 되면 비닐에 바람을 넣어서 터뜨리는 놀이를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몇 몇 아이는 놀라

서 울고 화가 난 한 아이와 비닐을 터뜨리던 아이가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우는 아이들을 급하게 달래놓고 싸운 아이들은 방 밖으로 나오게 했다. 나는 다른 것에는 관대하지만 싸움에는 매우 엄한 편이다. 아이들의 싸움을 보면 사실 순간적인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고 자지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싸우는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감정에 안맞으니까 싸우는 것이다. 특히, 남자 아이들은 주먹을 앞세우게 되니 싸움이 더 심해진다. 혹시라도 다칠까 봐 걱정되는 것도 크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혼을 낸다. 그래도 오늘은 비닐을 터뜨리던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알았는지 순순히 미안하다고 한다. 다른 아이도 자기가 화를 낸 것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미안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혼을 안낼 수는 없다.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서로 때리지 않았는가! 나는 또 다시 때리는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일장 연설을 한다. 사실 공부방에 계시는 실무 선생님 말씀하시던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내 말을 막 따라하고 있다.ㅋㅋ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을 내기는 해야 했기에- 속으로만 엄청 웃었다.ㅋㅋ 귀여운 내 아이들♥

길고 긴 수업이 끝나고 청소가 시작되었다. 근데 공부방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은 청소를 잘 못한다.ㅠ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다. 대걸레를 하고 나서 빗자루를 가져오는 것은 항상 경험하는 것이고 정 말 버리라고 하면 바닥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버리기도 한다.(쓰레기 치울 때 연필, 지우개 버리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청소를 하고 가면 내가 다시 청소를 해야하고 혼자 하는게 더 편하기도 하다. 하지만 청소도 하나의 경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교육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 없이 청소하는 것을 지켜보고 꼭! 청소를 하고 가게 한다.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쓰레기도 별로 없었고 대걸레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청소할 필요가 없었다. 아 이제 진짜 수업 끝이다~ㅋ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다음 주에 색종이 많이 사오세요~"

"딱지 만들어요 딱지!!"

내 손에 종이접기 시간에 만들었던 상자들 중에 하나를 주면서 가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배웅해주고 나서 나도 집에 가려고 가방을 맨다. 아이들을 상대하며 2시간을 보냈더니 힘이 하나도 없었다. 몸도 힘들고 혼이 빠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오늘 수업도 해냈다는 생각에

기쁘다. 물론, 오늘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기에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미안하다.ㅠ 이 부족한 내가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따라주는 아이들에게는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고 보니 공부방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다. 그 동안은 내가 원하는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따라오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그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르고 모든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나의 방식대로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을 익히고 나 자신이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학생도 우리를 이해해 준다.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다.



쇼파에 앉아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실무 선생님이 나가자고 나를 부르신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서 힘도 없는데 다른 학년 교사들이랑 저녁이나 같이 먹고 집에 가야겠다.ㅋㅋ 다음 주에는 더 잘해줘야지... 사랑하는 아이들아, 다음 주에 보자~♥

\* <공부방 수기>는 기고를 받기로 했다가 여러 사정이 겹쳐 저널 기자 중에 한 명인 혜림(choihr0120@hotmail.com)이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이 수기에서 소개한 열린공부방은 관악구 봉천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02-3285-3587) ^\_^



# 작업후기

팽이 | slowlife@jinbo.net

## 책-책-예거

혜림 | choihro120@hotmail.com

시작할 때의 두려움 드디어 발간!!  
하면서 느꼈던 막막함 아주 조금 앞을 내딛  
하지만 끝내고 느끼는 이 뿌듯함!! 나를 보게 된다.

현화 | mewa27@naver.com

아 너무 한게 없어서 부끄럽다. ㅜㅜ  
다음엔 더욱더 최선을!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수고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 realmbl2@hanmail.net

작업한다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광합성도 좀 못해서 까칠해진 듯...  
그래도 항상 내 곁을 지켜준 나의 친구들, 니코틴과 카페인! 고마워요  
이전 다른 친구들도 좀 봐야지 >\_< 저널팀 정말 다들 수고만빵  
다음 번엔 더 깊은 고민으로, 더 많은 어들과, 더 멋진 글들을! ^^

# Thanks to

후원해주신 분들

## 27대 사범대 학생회

## 25대 사회대 학생회

##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기고 및 인터뷰 해주신 분들

교사 최고봉씨, 27대 사범대 학생회 사무국장 명섭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교육공동체 나다,  
서울교대 김수연씨를 비롯한 2006 더블어쇼 참가자 분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